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5년 11월 22일(주일) 제1075호



‘엔젤트리’ 주인공을 찾습니다

소외된 이웃들에게 성탄 선물 전달
사회선교부, 12월 6일까지 사연 모집

사회선교부에서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엔젤트리 주인공을 모집한다. 엔젤트리는 소외된 이웃들에게 성탄 선물을 전달하는 행사다. 오늘(22일)부터 12월 6일까지 어려운 이웃들의 사연을 접수받는다.

성도들이 보내 준 사연들은 11월 29일부터 서빙고와 양재를 비롯한 국내 온누리교회 10개 캠퍼스 로비에 설치되는 엔젤트리 게시판에 게재된다. 성도들은 엔젤트리 게시판에 게재된 사연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뽑은 후 12월 25일까지 선물을 보내면 된다.

엔젤트리는 1972년 미국 알라바마주 교회들이 교도소 수감자들에게 준 성탄 선물을 수감자들이 다시 자신의 자녀들에게 전달한 것에서 유래되었다. 이후 미국의 많은 교회들이 성탄절을 앞두고 재소자 자녀들에게 부모의 이름으로 작은 선물을 전달하고 있다. 다음은 사회선교부 허원희 목사와의 일문일답.

엔젤트리 행사가 무엇이고, 실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엔젤트리는 성탄절을 앞두고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소외되고 생활

이 어려운 이웃에게 다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함께 선물을 전달하는 행사입니다. 사실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웃들에게 관심을 갖고, 찾아가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돕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성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참여하면 됩니까?

“오늘(22일)부터 3주 동안 어려운 이웃들의 사연을 신청 받습니다. 성도들이 전달해 준 사연을 모아 11월 29일부터 국내 10개 캠퍼스 로비에 엔젤트리 게시판에 게재합니다. 그 사연을 보고 후원하고 싶은 성도들은 사연과 함께 적힌 주소로 작은 선물을 보내면 됩니다.

반드시 후원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서 접수함에 넣어야 합니다. 또한 게시된 사연지 하단에 천사 그림이 있는데 그것을 뜯어 게시판 옆에 설치된 엔젤트리에 걸어주면 됩니다.”

문의: 010-3620-0034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40~50대 남편 위한 맞춤형전도집회

‘Begin Again’ 12월 6일까지 선착순 모집

전도사역본부에서 믿지 않는 40~50대 남편들을 위한 맞춤형전도집회 ‘Begin Again’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오늘(22일)부터 12월 6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믿지 않는 40~50대 남편들을 위한 맞춤형전도집회 ‘Begin Again’은 12월 21일 저녁 7시 서빙고 본당에서 개최된다. 온누리교회 등록 교인은 물론 타교회 성도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맞춤형전도집회에 참석을 신청한 성도들은 12월 2일, 9일, 14일에 열리는 ‘사전 요청자 모임’에 참석해야 한다.

이번 맞춤형전도집회는 부부가 함께 참석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2001년 믿지 않는 40대 남성들을 위한 전도집회 ‘비상구’에 이어 남편들을 전도하는 축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김미림 기자 mirim@onnuri.org

■ 2015년 하반기 공동체 종강예배 일정 ■

날 짜	공동체	장 소	시 간
서 빙 고			
11월 27일(금)	찬양	두란노홀	오후 6시
11월 27일(금)	성복	한동홀	오후 6시
11월 27일(금)	서빙고	시온홀	오후 6시
11월 27일(금)	양천	비전홀	오후 6시
11월 29일(일)	북누리	양주동신교회 수련원	오후 4시
12월 1일(화)	강촌	두란노홀	오후 6시
12월 1일(화)	한강	한동홀	오후 6시
12월 1일(화)	서대문	시온홀	오후 6시
12월 1일(화)	성동광진	비전홀	오후 6시
12월 3일(목)	용산	두란노홀	오후 6시
12월 3일(목)	관악금천	한동홀	오후 6시
12월 3일(목)	노원	상현교회	오후 6시
12월 4일(금)	OCC	두란노홀	오후 6시
12월 4일(금)	신용산	한동홀	오후 6시
12월 4일(금)	강서	시온홀	오후 6시
12월 4일(금)	특초	순형홀	오후 6시
12월 6일(일)	일산	일산비전센터	오후 4시 30분
12월 8일(화)	여의도	두란노홀	오후 6시
12월 8일(화)	중종로	한동홀	오후 6시
12월 8일(화)	이수	시온홀	오후 6시
12월 8일(화)	마포	비전홀	오후 6시
12월 10일(목)	영등포구로	두란노홀	오후 6시
12월 10일(목)	동대문중앙	한동홀	오후 6시
12월 10일(목)	광명	광명은광교회	오후 7시
12월 11일(금)	김포	두란노홀	오후 6시
12월 11일(금)	동작	한동홀	오후 6시
12월 11일(금)	가정	시온홀	오후 6시
12월 11일(금)	이촌	비전홀	오후 6시

날 짜	공동체	장 소	시 간
양 재			
11월 26일(목)	산본안산	온유홀	오후 8시
11월 27일(금)	서초D	화평홀	오후 7시 30분
11월 29일(주일)	푸른누리	온유홀	오후 4시
12월 1일(화)	분당B	온유홀	오후 7시
12월 3일(목)	서초A	드림홀	오후 7시 40분
12월 4일(금)	강남A	온유홀	오후 8시
12월 4일(금)	안양광촌	화평홀	오후 7시 50분
12월 4일(금)	Point5	도곡 온유홀	오후 8시 15분
12월 6일(주일)	하모니	비전홀B	오후 4시 30분
12월 8일(화)	양재	화평홀	오후 7시
12월 9일(수)	서초C	온유홀	오후 8시
12월 9일(수)	서초B	화평홀	오후 7시 30분
12월 9일(수)	과천의왕	드림홀	오후 6시 30분
12월 10일(목)	송파	온유홀	오후 7시 30분
12월 11일(금)	강남D	온유홀	오후 8시
12월 11일(금)	강남C	화평홀	오후 8시
12월 11일(금)	강남B	기쁨홀	오후 8시
12월 12일(토)	분당A	목상의집	오전 10시
캠퍼스			
11월 27일(금)	수원 동누리	경찬홀	오후 7시
11월 27일(금)	수원 북누리	비전홀	오후 7시
11월 28일(토)	수원 서누리	평택 그릿시내수련원	오전10시
12월 4일(금)	수원 남누리	비전홀	오후 7시
11월 29일(주)	부천	본당	오후 7시
12월 2일(수)	대전	본당	오후 7시 30분
12월 2일(수)	평택	본당	오후 7시 30분
12월 3일(목)	남양주 C	본당	오후 8시
12월 4일(수)	남양주 A	본당	오후 8시
12월 4일(수)	인천	본당	오후 8시
12월 4일(수)	강동 A	사랑홀	오후 8시
12월 4일(수)	강동 B	본당	오후 8시
12월 13일(주일)	양지	박모세홀	오후 2시

“나는 언니가 고맙고, 자랑스럽다”

지적장애인 언니와 동생의 꿈 ‘세상의 빛과 소금’

대학청년부 하늘공동체에 유난히 사이가 좋은 자매가 있다. 티 없이 맑은 영혼이라고 불리는 자매다. 주인공은 윤지은, 영은 자매다. 5살 터울이다. 언니 윤지은 자매는 태어날 때부터 지적장애가 있었다. 장애로 인해 사람들이 보내는 불편한 시선을 견뎌야 했지만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았다. 신앙이 강력한 버팀목이었다.

윤지은 자매는 올해 굿윌스토어가 선정한 ‘굿피플’이라는 우수사원으로 선정됐다. 그녀가 지적장애라는 장애물을 넘어 직장가 가정에서 티 없이 맑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 김미림 기자 mirim@onnuri.org

“협동심과 사회성이 비결이라면 비결이지요.”

목소리가 다부지다. 확신에 찬 목소리에 힘이 넘친다. 윤지은 자매가 굿윌스토어가 선정한 우수사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협동심과 사회성을 길러 주려고 애쓴 가족들의 역할이 주효했다. 그녀의 가족들은 장애라는 장애물을 뛰어 넘어 어디서든지 성실하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망했다. 그것을 위해 정말 열심히 달려왔다. 그 열매들이 맺히고 있는 것이다.

동생 윤영은 자매는 하늘공동체가 신림동 삼성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사역에 누구보다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 신림동 삼성교회는 시각장애인들을 섬기고 있는 교회다. 시각장애인들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줄 교사가 없다는 소식을 듣고 하늘공동체가 ‘Acts팀’을 구성해 매주 봉사를 하고 있다. Acts팀의 팀장이 바로 윤영은 자매다. 그녀는 어린이들에게 사랑을 주고, 그들과 소통하는 것이 즐거워 매주 그곳을 찾고 있다. 그곳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면서 힘든 점도 많았다. 시각장애인 부모를 둔 자녀들이 다소 거칠었고, 밝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아이들의 내면을 들여다 보면서 왜 그런지 이유를 알 것 같았다. 누구보다 그녀가 그들의 아픔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의 언니도 장애인이기 때문이다. 삼성교회 어린이들이 왜 아프고, 왜 힘든지 고스란히 느껴졌다. 자신이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있는 것이다.

남들과 조금 다르지만,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우리 언니’

윤지은 자매는 남들과 조금 다르게 태어났다. 선천적으로 지적장애가 있었다. 한국사회에서 장애가 있는 어린이들을 대하는 시선이 나태도가 곱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족들 모두가 슬픔을 안고 살았다. 어머니는 그녀를 눈물로 키웠다. 어머니에게 그녀는 평생 지고 가야 할 숙제이기도 했다.

지적 장애인인 말 그대로 지적 능력 발달이 부족하거나 불충분하다. 이 때문에 학업성취나 일처리 능력, 사회 적응능력이 다소 떨어진다. 지적장애는 1~3급으로 나뉘는데, 1급은 사회생활에 적응이 현저히 곤란해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2급은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

킬 수 있는 정도, 3급은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가벼운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적절한 교육과 훈련이 제공되면 스스로 살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 책임감을 가지고 혼자 해낼 수 있도록 책임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윤지은 자매가 직장에서도 가정에서 기능할 수 있는데에는 가족들의 역할이 가장 컸다. 동생은 언니를 늘 배려했고, 감싸줬다. 부모의 헌신과 노력은 말로 표현할 길이 없다. 그녀의 부모님은 교사다. 아버지는 고등학교 국어 교사, 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사다. 부모님은 지적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해 그녀를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과정을 특수 학교가 아니라 일반 학교에서 보내도록 했다. 또래들과 지내면서 사회성을 기르고, 교육도 받게 했다.

그러나 과정이 쉽지 않았다. 장애가 있는 언니는 학창시절 친구들로부터 외면당하기 일쑤였다. 집단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 돈을 빼앗기기도 했다. 친구들의 놀림도 받았다. 그런데도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넘어지지도 않았다. 12년 동안 교과과정을 마치고 대학에까지 입학했다. 그녀의 성실함이 원동력이었다.

윤지은 자매는 1년 365일 오전 5시에 일어나고, 밤 11시에 잠을 잔다. 하루도 결석 없이 학교를 다녔다. 어려운 일에 굴하지 않았다. 근면함으로만 따진다면 그녀를 따라올 사람이 없었다. 등교시간보다 늘 1시간 전에 학교에 도착했고, 하늘공동체 예배에도 1시간 전에 도착했다. 1년 동안 체중을 30kg나 감량했다. 주어진 하루하루에 감사하는 훈련이 그녀의 성실함을 만든 저력이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있었다. 아버지가 공동체에서 간증하는 것을 듣고 한 장로가 언니가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었다. 그녀에게 매우 좋은 기회가 되었다. 그녀의 가족들은 어려운 고비를 넘길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대학에 가서도 성실했다. 4년 동안 성실하게 대학생 생활을 하는 그녀에게 도움을 주는 친구들이 생겨났다. 유학 간 어느 친구는 편지로 소식을 전하고 있다.

그녀의 일과는 규칙적이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가족들에게 모닝콜을 해준다. 물을 가져다주면서 “굿모닝”이라고 외친다. 매주 월



하늘공동체 윤지은(오른쪽)·윤영은(왼쪽) 자매

요일 아침마다 분리수거도 담당한다. 늘 아버지와 함께 아침을 먹었다. 이렇게 성실한 그녀에게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취업의 문이 활짝 열렸다.

그녀는 2011년 굿윌스토어에 입사했다. 그녀는 장애인들의 직업재활시설 ‘굿윌스토어’에서 영업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굿윌스토어는 100년 전 미국에서 중증장애인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한 단체다. 그녀는 한국에 처음 생긴 굿윌스토어 송파점에서 일하고 있다.

그녀는 매일 아침 10시까지 출근한다. 한 번도 마다않고 출근시간 보다 늘 1시간 전에 회사에 도착한다. 그녀는 분기마다 실적을 쌓았다. 친절하고, 성실한 덕분에 3년 연속 근속 우수상을 수상했다. 3년 연속 ‘굿피플’인으로 선정되었고 상이 네번 누적되면 금일봉이 나오는데 올해 받은 상금으로 온 가족이 함께 여행을 떠날 계획이다.

속앓이의 대상에서 기쁨의 이유로

그녀가 회사 생활을 이토록 즐겁게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부모는 매일 그녀에게 실생활에 필요한 조언과 덕담을 아끼지 않았다. 아버지는 늘 말씀으로 격려했고, 어머니는 두 딸을 뒷바라지 했다.

물론 위기도 있었다. 언니가 어릴 적에는 지

적장애 증세가 심했다. 그때는 항상 전쟁이었다. 동생에게 화를 냈고, 엄마에게 줄곧 투정을 부렸다. 그래도 그녀의 가족들은 그녀를 사랑으로 품어주었다. 그럴 때마다 엄마는 ‘이 세상에 지은이와 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막막하기도 하고, 장애인 자녀를 가진 부모로서의 삶이 힘들어 매일 울면서 기도했다. 동생에게 언니는 속앓이의 대상이자 원망의 이유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는 속앓이의 대상에서 기쁨의 이유로 바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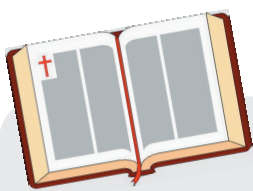
“사랑하는 언니, 늘 고맙고 언니가 자랑스러워. 어릴 적에는 부끄러웠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언니라서 고맙고 감사해. 우리가 더 가깝고, 성숙한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어. 우리가 받은 사랑, 세상에 흘려보내자. 사랑해.”

동생은 언니 이야기만 꺼내면 밝게 웃는다. 그녀들을 보는 이들도 저절로 미소가 지어진다. 오늘도 이 자매는 하늘공동체 예배시작 한 시간 전에 도착할 것이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 언니”라고 자랑하고 있을 것이다.

동생 윤영은 자매의 생일이 5월 13일이다. 그녀의 생일에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셨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 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마 5:13).

윤지은·영은 자매가 써내려가는 예수바보 행전이 벌써부터 기대된다. 그녀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닐 수 없다.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다

사도행전 4:36~5:11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나아가면 사탄은 공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리에 순종한다면 사탄을 이길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많은 제목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빼놓을 수 없는 제 목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따라 대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따라 처 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신 것뿐만 아니라 예 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를 범하 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범 할 때마다 그 죄에 따라 처리하신다면 살아남 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 배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따라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 며 화를 더디 내시고 사랑이 넘쳐나는 분이시 다. 항상 꾸짖지는 않으시고 끝까지 진노를 품지도 않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 인으로 대하지 않으셨고 우리 죄악에 따라 갚 지 않으셨다. 하늘이 땅 위에 높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분의 사랑도 크다. 동쪽이 서쪽에서 먼 것처럼 하 나님께서는 우리 죄악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 기셨다.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듯 여호와께에서도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 기신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흠임을 기억하시기 때문이다”(시 103:8-14).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심판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래 참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아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고 같이 여기시고, 그리스 도 안에서 모든 죄를 회복하고, 일어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이 감사가 하 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어떤 풍요로움보다 중 요한 감사의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공격해 하나님 대적하는 사탄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하고, 무 시하는 것으로 주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가 있 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큰 두려움과 큰 경외함을 부어주십니다. 사도행 전의 역사를 보면 사도들을 통해 큰 능력과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이 그 기적과 표적에 놀라 예수님을 믿고, 사 도들의 인도에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편으로 기적과 표적만을 바라고, 기적이 놀라 워서 예수님을 믿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탄 은 그것을 놓치지 않고 공격했습니다. 성령의

크신 역사가 있는 곳에는 사탄도 일하려고 달 령됩니다.

여러분, 사탄이 감히 하나님을 어떻게 대항 할 수 있습니까. 사탄이 이 세상에 있는 물질 을 통해서 어떻게 일할 수 있겠습니까. 사탄 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을 통 해서 일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함으로써 대적합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직접 대항할 수 없습니다. 자연만물은 하나님을 대 적할 수도, 하나님의 역사를 훼방할 수도 없 습니다. 사탄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을 공격했 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 공격했습 니다. 그런 사탄이 우리와 교회를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사탄 이 부지런히 쫓아다니며 일합니다. 사탄이 일 할 때에는 보이지 않게 합니다. 성도들이 모 이는 곳에 먼저 가서 준비합니다. 먼저 시험 당할 일을 준비합니다. 믿었던 관계를 통해서 방심하게 만들고, 은밀하게 공격합니다. 방심 한 사이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서로 오해하 게 하고, 서로 미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 나님의 나라가 이뤄지지 않게 방해합니다. 사 탄은 교회밖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것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 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교 회를 공격하면 교회는 더욱 곤고해집니다. 그 래서 사탄은 교회 안에 있는 리더십들을 통해 서 교회를 허무는 일을 행합니다. 우리 모두 가 사탄의 공격을 받을 수 있고, 사탄의 도구 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리고 바나바

오늘 본문은 사탄이 사도행전적 교회의 일 쿤을 무너뜨려서 교회를 공격하는 이야기입 니다. 사도행전에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입니 다. 그러나 성경은 진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좋은 이야기로만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서 교훈을 줍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의 땅을 팔아서 헌금을 했는데 이 부부가 땅을 판 돈을 모두 내지 않고 일부를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전부 를 내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성 령의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었기에 그 사실 을 알았습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책망했 습니다. 아나니아가 베드로의 말을 듣고 쓰러 져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아나니아가 죽 은 지 3시간 후에 그 아내 삽비라가 왔습니

다. 아나니아가 죽은 지 모르고 베드로가 땅을 판 값이 이것이 전부냐고 질문 했을 때 삽비라도 “네 이것뿐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즉시 삽비라도 남편처럼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죽었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고, 삽비 라는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이름에 맞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너무나 충격적 인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가 충격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불신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헌금을 한 사람 아닙니까. 안 한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할 수 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행위에 대한 형벌로 죽음을 내리셨다는 것이 지나쳐 보입 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충격적인 사건을 행하셨는지를 세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우선 이 사건이 발생한 배경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생활 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마음 한 뜻이 됐습 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고 가진 것을 모두 공동 으로 사용했습니다.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에 대해 증거했고 풍성한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부족 한 것이 있는 사람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따 금씩 땅이나 집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 것을 팔아서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바쳤습니다. 그러면 누구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 주었기 때문입니다”(32-35절).

당시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마음 한 뜻이 되 어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함께 은 혜를 나누었습니다. ‘이따금씩’이라는 단어 를 주목하십시오.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가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땅이나 자 기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이따금씩 그것 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갖다 주면 필요한 사람 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강요 하는 공산주의식 분배가 아니라 지극히 자발 적입니다. 지극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따금 씩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36절과 37절에 나오는 한 사람의 행동을 주 목했습니다.

“키프로스 출신인 요셉이라는 레위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그를 바나바라고도 불 렸는데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 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36-37절). 바나바라는 사람은 키프로스 출신의 요

이라는 레위사람 입니다. 바나바라는 뜻은 ‘위로의 사람’입니다. 바나바가 땅을 팔아 전 부를 바친 사건이 그들 모두에게 큰 은혜와 도전이 되었습니다. 바나바의 행동과 아나니 아와 삽비라의 행동이 대조됩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재산을 팔았습니다. 그는 그 돈의 일부 를 떼어 자기 것으로 숨겨 두고는 나머지를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와 바쳤습니다. 그의 아내도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행 5:1-2).

그 부부는 땅을 판 돈의 일부를 숨겨두고 사 도들에게 갖다 주고서 전부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아나니아야, 어떻게 네가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 성령을 속이고 땅 값으로 받은 돈의 일부를 네 것으 로 몰래 숨겨 놓았느냐? 그 땅은 팔기 전에도 네 소유였고 또 팔고 난 뒤에도 네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이런 일 을 마음에 품었느냐? 너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행 5:3-4).

베드로가 책망한 이유는 전부를 내지 않아 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부를 내지 않으면 미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정반대입 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내지 않아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문제가 무엇입 니까. 일부를 내놓고 전부를 냈다고 거짓말 한 것입니다.

거룩하고 순결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아나니아가 책망을 듣는 순간 쓰러져 죽었 습니다. 삽비라도 3시간 후에 동일한 거짓말 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간 길을 따라 간 것입니다. 그들은 왜 일부를 냈으면서 전부를 냈다고 거짓말을 했을까요. 왜 거짓말하기로 입을 맞췄을까요. 사탄에게 마음을 빼겼고, 사탄에게 마음을 내어줬기 때문입니다. 그들 은 바나바와 자신을 비교했습니다. 바나바가 전부를 드렸다고 성도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것을 보고 잘못된 비교의식과 경 쟁의식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분 량대로 할 수 있는 만큼 한 것이 더 존경스러 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헌신보다 돋보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헌신이든지 거짓이 더해지면 성령을 속인 것 입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해서라도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13면에 계속)

“지금이 바로 중동의

해외 비전교회의 현재와 미래

1. 일본 비전교회
2. 아부다비 비전교회
3. 미주 비전교회



김태완 목사
(아부다비 온누리교회)

사도행전 16장에 마케도니아의 환상을 본 바울이 빌립보에서 사역을 하다가 감옥에 갇힌다.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찬송을 부르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난다. 감옥이 흔들리면서 문이 열리고, 묶였던 죄사슬이 풀렸다.

요즘 아랍 교회 지도자들과 만나 대화 하다 보면 중동의 상황이 마치 이 사건과 비슷하다고 이야기한다. 오랫동안 중동의 영혼들이 이슬람이라는 감옥에 갇혀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감옥의 기반부터 흔들고 계시다는 것이다. 그들을 가두었던 감옥의 문이 열리고, 사슬이 풀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의미다.

아랍, 페르시아, 투르크 문명권에서 시작된 중동의 역사

‘중동’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 과격 테러단체 IS와 메르스를 떠올린다. 그래서 막연한 두려움과 이슬람에 대한 혐오가 있는 것 같다. 아랍 사람들은 다들 낙타타고 다니고, 대추야자를 먹고, 무더운 기후와 사막 가운데에서 생존을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중동의 문화, 지리, 기후, 종교 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하다.

역사적으로 이슬람권은 크게 세 개의 문명에서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첫째는 아랍 문명권이다. 이집트를 필두로 고대 문명의 발흥지 이라크와 시리아, 페니키아 혹은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잘 알려진 레바논, 이슬람이 발흥한 사우디아라비아 등 부유한 산유국들이 있는 아라비아 반도가 아랍 문명권이다. 아랍어를 공통으로 쓰고, 이슬람을 믿는다. 그러나 아랍 문명권 안에도 수많은 이슬람 종파가 존재한다. 또한 경제적 수준과 인구, 정치체제 등이 다양하다.

두 번째로 페르시아 문명권이 있다. 이들은 과거 구약성경에 나오는 메데와 바사 제국의 후예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란을 중심으로 전

지난 13일, 프랑스 파리에서 이슬람 급진주의 무장세력 ‘IS(이슬람국가)’에 의해 폭탄테러가 발생했다.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낸 극악무도한 테러에 전세계 사람들이 경악하고 분노했다. 이번 테러로 인해 반(反)이슬람 정서가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6일 캐나다 토론토에서는 한 여성이 무슬림이라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크리스천들은 이슬람과 무슬림(이슬람교도)을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할까. 아부다비 온누리교회 김태완 목사가 이슬람과 무슬림, 중동의 정세, 아부다비 온누리교회의 역할에 대한 글을 보내왔다. /편집자 주

세계에서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는 가장 큰 민족 쿠르드, 아프가니스탄 등도 페르시아 문화권에 속한다. 대부분의 이슬람이 엄격한 율법과 규율을 강조하는 수니파임에 반해서 페르시아 문명권 국가들은 대부분 시아파의 영향을 받았다. 대표적으로 이란은 시아파의 종주국이다. 이라크와 시리아, 사우디아라비아에도 상당한 수의 시아파가 존재한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세 번째로 터키를 중심으로 한 투르크 문명권이다. 과거 오스만제국의 영광 속에서 승승장구하다 1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급격하게 몰락했다. 터키를 비롯해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에 있는 ‘~스탄’이 들어가는 국가들은 투르크 문명권으로 끈끈한 유대와 형제애를 과시한다. 아직도 중동의 맹주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현재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과 분쟁의 원인이 무엇일까? 원래 중동지역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서구 열강으로부터 독립하게 되었다. 이스라엘의 독립과정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서구열강은 이들 국가들을 독립시켜준 뒤에도 자신들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중동의 다양한 세력들과 종파들에게 정치적, 경제적 약속과 타협을 했다. 중동 지역은 오랜 역사 동안 만들어진 자연스러운 국경선이 아니라, 임의적으로 그어진 국경선 안에서 국가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겪게 됐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독립 이후 빠른 시간 내에 국가를 만들어가는 전제군주 국가 체제나 독재정부 체제로 시작했다. 그리고 전 세계가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냉전 체제로 재편되면서 이들 독재자들과 군주들은 미국과 소련의 지원을 받으면서 권력을 강화했다. 독재 정부 아래서 신음하던 이슬람 원리주의자들과 근본주의자들이 점차적으로 정치적인 세력화를 강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집트의 경우를 보면 이를 쉽게 알 수 있다. 1950년대 이집트의 지도자 나세르는 원래 군부 쿠데타를 통해 대통령이 됐다. 그는 아랍 민족주의를 표방하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통해 아랍권 전체를 하나로 묶으려는 야심이 있었다. 그는 이집트의 독립 이후 냉전체제 아래서 소련과의 협력을 통해 세력을 확장했기 때문에 아랍식 사회주의 노선을 채택했다. 그래서 이슬람보다는 사회주의에 기반을 둔 사회 체제를 실행했다. 이런 군부 독재 지도자들 아래서 이슬람이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시작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시작한 와하비즘 등의 근본주의 이슬람 사상을 통해 이상적인 이슬람 사회 건설을 꿈꾸고,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사회 불만세력들에게 접근하기 시



이라크 난민촌.

작했다. IS나 알카에다에 많은 젊은이들이 동참하고 있는 이유는 중동의 경제 침체와 사회 불안, 젊은 층의 심각한 실업문제가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중동에 냉전체제가 마무리되면서 힘의 균형이 서서히 깨지기 시작했다. 최근 전쟁으로 신음하고 있는 예멘의 경우에도 냉전체제가 끝나면서 소련의 군사지원이 끝나고, 북예멘과 남예멘 사이에 내전이 이어지면서 혼란에 빠진 경험이 있다. 점차적으로 중동의 독재국가들과 왕정국가들이 글로벌 경쟁체제 안에서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다.

혼란 속에 세력 키운 무장테러단체들

2011년 재스민혁명이 폭발하면서 중동에 민주화 바람이 불었다. 그동안 중동을 힘으로 통치하던 독재자들이 서서히 사라지게 되었다. 리비아의 카다피와 이집트의 무바라크 대통령이 가장 좋은 예일 것이다. 그동안 중동의 각 나라는 복잡하고 다양한 인종, 이슬람 종파, 종교들로 나누어져 있었지만 독재자의 공포정치로 질서를 유지하고 있던 나라들이 많았다. 그러나 이러한 독재자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면서 중동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이라크와 시리아가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두 나라는 아랍식 사회주의정당인 바아쓰당이 집권해 오랜 기간 독재체제를 유지했다. 그 안에는 시아파, 수니파 그리고 쿠르드 민족 등이 다양한 형태로 공존해 왔다. 집권했던 독재자들이 소수와 출신들이었고 오랫동안 다수파를 힘으로 장악했다. 이라크는 대테러전쟁의 여파로, 시리아는 재스민혁명의 여파로 독재자들에게 힘의 공백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것이 다양한 인종과 종파 사이의 갈등으로 번지고 급기야 내전 양상으로 발전했다. 이러한 공백을 이용해 IS나 알카에다 같은 이슬람 근본주의 무장테러단체들이 급속도로 세력을 확산할 수 있었다. IS는 선교사나 기독교인들, 서양인들에게만 잔혹하게 살해하고 테러를 자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자국의 다른 이슬람 종파들과 인종들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집트나 튀니지 같은 나라들은 선거를 통해 이슬람 정당이 집권을 하게 되었다. 국민들은 이슬람이 건설하는 이상사회가 세워지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그 기대는 얼마 가지 않아 철저히 무너졌다. 이집트 사람들에게 모르시 정권(무슬림 형제단)이 집권했던 1년(2012년 7월~2013년 6월) 동안 국론이 분열되고, 경제가 파탄났다.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 오히려 무슬림 형제단 정권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이슬람에 실망하고, 공개적으로 이슬람 신앙을 떠나겠다고 공언했다. 이러한 젊은이들이 수백만에 이른다고 한다. 이라크와 시리아에서도 양상은 다르지만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많은 이들이 이슬람의 폭정과 테러, 잔인함에 치를 떨고 난민이 되어 주변국으로 탈출하고 있다. 위기와 혼란 속에도 희망이 자라고 있다. 우리 사역자들이 섬기고 있는 이라크 E지역(북부 쿠르드 지역)의 상황을 들어보면 놀라움 그 자체다. 많은 쿠르드인들, 이라크인들, 코바니 종족들이 IS의 압박을 견디지 못해 이라크 북부 인근의 쿠르드 자치주로 피신을 나와 있다. 이들은 IS 때문에 이슬람에 너무나 실망을 했고, 복음에 마음을 활짝 열고 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독교인들의 사랑과 섬김에 반응을 하고 있다. 이렇듯 하나님은 중동

문 여는 황금기회다”

영적, 지정학적, 전략적 선교 베이스캠프에 세워진 ‘아부다비 온누리교회’
재스민혁명, 내전, 대테러전쟁 여파로 위기에 빠진 중동에 복음 전해야



이라크 난민촌의 아이들.

의 감옥을 기반부터 흔드시오, 닫힌 문을 열고 계시고 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황금 기회를 열고 계시다. 그 기회를 잡기 위해 4년 전 중동 아라비아반도에 아랍에미리트 연합(UAE)의 수도 아부다비에 온누리교회가 세워졌다.

영적, 지정학적, 전략적 선교 베이스캠프

아랍에미리트는 7개의 토후들이 연합해 국가를 세운 나라로, 중동에서 가장 발전하고 부유한 산유국 중 하나다. 한국에서 몇 년 전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수주해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해 많은 건설업체들이 중동의 경제 붐을 다시 만들기 위해 땀을 흘리고 있는 현상이기도 하다. 영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선교전략적인 면에서 아랍에미리트는 상당히 중요한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일단 위치적으로 이곳은 아프리카와 유럽, 중동, 서아시아와 남아시아를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지다. 현재 아프리카에서는 ‘NGO더 멋진세상’을 필두로 세네갈과 코트디부아르, 가나, 감비아, 케냐, 에티오피아, 르완다 등지에서 구호사역과 제자양육, 현지교회 협력 사역, 교회개혁 등의 사역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에서 아웃리치팀들이 이 지역에 올 때 걸리는 시간은 대체적으로 30시간이 넘는다. 직항이 없기 때문에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두바이나 아부다비를 거쳐서 가야 한다. 아부다비에서는 중동과 아프리카의 주요국들은 물론, 인도와 네팔, 파키스탄까지도 5시간 안에 비행기로 연결될 수 있다. 아프리카나 중동 등지의 열악한 환경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한국까지 가지 않으면서도 잠시 쉬고 재충전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선교베이스로

적합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

아부다비 온누리교회에서는 2014년부터 2년에 한 번씩 중동아프리카에서 사역하고 있는 온누리 선교사들을 초청해 쉬고, 재충전 할 수 있도록 OMC(Onnuri Mission Conference)를 개최하고 있다.

아부다비와 두바이는 다양한 사역들을 융합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다. 현재 UAE 인구는 950만 정도다. 인도인들이 260만 명으로 27%를 차지하고, 파키스탄 사람이 120만(13%), 아랍에미리트인이 108만(11%), 방글라데시 70만(7%), 필리핀 52만(5.5%), 이란 50만(5.2%), 이집트 40만(4.2%), 네팔 30만(3.13%), 중국인 20만(2.1%)이 살고 있다. 이외에도 요르단, 아프가니스탄, 팔레스타인, 영국, 수단, 소말리아 등 10만 명이 넘는 다양한 국적의 인구들이 있다. 한국 사람은 2만 명 정도다.

아부다비와 두바이에 많은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 정치, 경제적인 면에서 다른 아랍 국가들에 비해 훨씬 자유롭다. 각 토후국마다 종교 부지를 허용하고 있고, 다양한 민족의 교회들이 세워져서 종교 부지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아울러 복음주의의 교단을 통해서 사역자들에게 비자도 발급해 주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사역들과 교회들, 많은 사역자들이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디어사역, 출판사역, 현지교회 협력사역, 난민사역 등 각종 구호·구제사역의 기지 역할을 할 수 있다.

아부다비 온누리교회의 사명과 역할

아부다비 온누리교회는 올해를 온누리교회 양육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해로 삼고 양육에 힘쓰고 있다. 많은 성도들이 아부다비를 방문

하고 새롭게 정착했다. 몇 년의 근무가 끝나면 다시 임지를 바꾸기 때문에 교회 구성원의 입출입이 항상 자유롭고 다양하다. 그래서 늘 교회에는 새로운 에너지가 넘쳐나고, 다양한 사람들과 만남을 이어갈 수 있다. 그래서 교회의 리더십들을 온누리교회 양육체제 안에서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내년에는 교회의 역량을 디아스포라 사역과 레이버캠프 사역, 난민사역에 집중해 보려고 한다. 수많은 디아스포라들에게 전교회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친구가 되어 함께 삶을 나누는 사역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미 성도들 중에는 현지인뿐만 아니라 제3국 이주민 근로자들과 우정을 나누고, 직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들이 많다. 내년에는 교회적으로 이웃사랑을 주제로 캠페인을 벌여나가려고 한다.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친구관계를 통해 전도해서 아부다비에 와 있는 외국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자 한다.

레이버캠프 사역을 더욱 확대해 가고자 한다. 아부다비에는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림아일랜드’라는 지역이 있다. 림아일랜드 깊숙이 들어가 보면 굉장히 큰 노동자들의 숙소가 있다. 그곳을 ‘레이버캠프(Labor Camp)’라고 부른다. 아부다비, 무사파 등지에 수많은 레이버캠프가 있고, 규모는 수천 명이 넘는다. 미국의 한 사역단체가 림아일랜드 뿐만 아니라 무사파를 비롯해 많은 레이버캠프에 있는 인도인, 파키스탄인, 필리핀, 네팔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키우고 있다. 아부다비 온누리교회도 이 단체와 연합사역을 펼쳐 올 하반기부터 레이버캠프를 정기적으로 방문해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 크리스마스에는 이들을 교회로 초청해 전도집회를 열 계획이다. 내년에는 더 많은 성도들이 레이버캠프 사역에 동참해서 사역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궁극적으로 안산M센터처럼 이주민사역을 위한 선교센터가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다.

난민에 대한 지원과 사역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아부다비 온누리교회 성도들 중에 일반인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이라크나 중동의 분쟁지역으로 출장을 가는 경우가 있다. 이곳 지역에서 일하는 사역자들을 아부다비로 초청해 사역에 대한 정보도 얻고, 함께 중보하며 난민들을 돕기 위해 모금을 시작했다. 이번 추수감사절 헌금은 이라크 난민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쓰인다. 내년에도 이러한 구호사역과 구호사역을 돕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아부다비 온누리교회가 현장 베이스 역할을 할 예정이다.

2016년은 중동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해라고 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슬람의 근본을 뿌리부터 흔드셔서 수많은 사역들이 중동에서 진행될 수 있게 될 것이다. 시리아 내전과 이라크 상황, 중동의 경제 불안과 정치 불안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내년에도 이동하게 될 것이다.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했던 시대와 비슷하게 많은 사람들과 문물들, 사상들이 교류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지금 두바이와 아부다비는 그 역사의 흐름 한 가운데에 있다. 비교적 IS나 이슬람 테러단체들로부터 안전한 위치에 있고, 중동의 거대 도시로서 물자와 인적 교류의 한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다. 수많은 교회들과 사역자들이 사역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어 있다. 아울러 수많은 디아스포라 외국인들이 아랍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전도와 사역을 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이곳에서는 금요일에 모든 교회가 예배를 드린다. 일요일이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를 가고, 출근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매주 금요일마다 아부다비 온누리교회를 위해 기도해주면 좋겠다.

이곳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만으로도 큰 감격이다. 선교사들이 아부다비 온누리교회 예배에 참석하면 정말 좋아한다. 오랜만에 함께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된다는 것이다. 아부다비 성도들과 교제하고 함께 예배 드리면서 많은 선교사들이 회복을 경험하고 있다. 그것만으로도 큰 보람과 기쁨을 느낀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마 9:37-38).

예수님은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말씀하셨다.

블레싱 사하라 이후 다시 한 번 중동을 위해 중보기도와 사역, 헌신이 이어지길 고대한다. 하나님은 지금 중동을 기초부터 흔들고 계신다. 중동의 열린 문이 언제 닫힐지 아무도 모른다. 지금 그들에게는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하다.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야 한다. 쿠르드인들, 시리아 난민들, 이라크 사람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려있다. 아랍교회와 협력해 새로운 장을 열어가야 한다. 이집트 교회가 움직이고 있다. 이집트와 아랍 전역에 꿈과 환상으로 주님을 만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 위성방송과 인터넷, 모바일을 통해 복음을 접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 아프리카와 필리핀에서 온 근로자나 가정부들이 아랍 현지인 가정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내년에는 아랍 땅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송도여! 메시아를 노래하라!”

인천 온누리교회 추수감사절 및 예배처소 이전 감사예배

인천 온누리교회가 송도 컨벤시아로 예배처소를 이전했다. 이를 축하하는 감사예배 ‘오픈 메시아’를 지난 주일(15일) 저녁에 드렸다. 송도 컨벤시아에서 드린 첫 번째 예배였다.

지난 15일, 송도 컨벤시아. 추수감사절 및 예배 처소 이전 감사예배를 드리려는 인천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발걸음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특히 이날 예배에서는 특별한 찬양이 울려 퍼졌다. 감사예배에 참석한 인천 온누리교회 450여 명의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헨델의 ‘메시아(Messiah)’를 합창한 것. 새로 이전한 예배처소에 헨델의 메시아가 울려 퍼지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 김미림 기자 mirim@onnuri.org



450명의 인천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메시아’를 합창하고 있다.

인천 온누리교회 ‘추수감사절 및 예배 처소 이전 감사예배’의 하이라이트는 뭐니뭐니해도 모든 성도가 한 목소리로 헨델의 메시아를 합창한 순간이었다. 이날 인천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합창한 헨델의 ‘메시아(Messiah)’는 1742년 4월 13일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초연된 작품이다. 구세주 일생을 그린 곡으로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

인천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추수감사절에 예배처소를 이전하는 것을 축하하자는 의미에서 헨델의 메시아 공연을 준비했다. ‘오픈 메시아’를 주제로 열린 이번 공연을 위해 인천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2달여 동안 적잖은 수고를 했다. 평신도와 성가대가 연합했고, 차세대와 부모가 손을 맞잡았다. 이날 공연에 참석한 인원만 해도 500명 가까이 된다. 450여 명의 성도와 36명의 오케스트라 단원, 차세대가 힘

을 모았다.

인천 온누리교회 2부 성가대 김건주 성가사가 이번 공연의 총괄 지휘를 맡았다. 인천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헨델의 메시아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한 장본인이다. 그는 2시간 가까이 이어지는 공연을 위해 고군분투했다.

김건주 성가사는 “500명 가까이 되는 합창단을 2달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훈련시키고, 공연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믿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 마음 한 뜻으로 ‘할렐루야’

인천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연습하고, 2시간 가까이 이어진 공연을 성공리에 마쳤다는 것 말고도 의미가 있다. 송

도로 예배처소를 이전하면서 자칫 하면 성도들이 혼란을 겪을 수도 있는데 인천 온누리교회는 흔들리지 않았다. 이번 공연을 준비하면서 더욱 단단해졌다. 교회와 성도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줬다는 것이 더 큰 수확이다. 이에 대해 인천 온누리교회 담당 서경남 목사는 “인천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중보기도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기영 장로도 인천 온누리교회 성도들을 연합시킨 또 한 명의 주역이다. 김 장로는 이번 공연에 대해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었는데 그것을 해낸 것 같아 뿌듯하다”면서 “세대를 뛰어 넘어 하나 된 인천 온누리교회의 지력을 확인한 것 같아 감격스러웠다”고 평가했다.

인천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선보인 헨델의 메시아는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예언

과 성취, 그리스도의 강림, 2부는 수난과 속죄, 3부는 부활과 영원의 생명을 그려냈다.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강력하게 호소하는 작품이다. 이날 피날레는 헨델의 메시아 중에서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할렐루야’가 장식했다. ‘할렐루야’가 울려 퍼지는 순간 예배처소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도저히 잊히지 않는 장면이 연출되었다. 세대를 뛰어 넘고, 마음과 마음을 모아 찬양하는 성도들의 모습은 그 어떤 보석보다 아름답고 빛났다.

이정진 성도는 “이날 예배를 드리고 나서 가정과 교회를 위해 마음을 모아 더욱 기도하게 됐다”고 했고, 정상남 집사는 “한 마음 한 뜻으로 합창한 찬양을 내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목회칼럼 서경남 목사(인천 온누리교회)

인천 송도에서 복음이 흘러나가는 꿈

‘오픈 메시아’ 합창은 내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을 때 교회가 아닌 열린 공간에서 우연히 본 기억이 있다. 그들은 ‘메시아’를 불러본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누구나 자기 악보를 가져와서 같이 부를 수 있다. 전 세계 헨델의 메시아를 부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메시아’를 자신이 기본적으로 부를 수 있다는 자신감 또는 우월감이 있다. 하나의 경험이다. 내가 본 특별한 경험은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 이 합창을 부르는 모습이었다.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이 파트별로 함께 찬양하고, 즐기는 모습을 보는 데 정말 아름다웠다.

젊은이들이 아버지와 함께 메시아를 불렀다는 것에 대한 감동이 있는 것을 보고 한국에 적용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메시아의 의미는 ‘기름 부으심’을 뜻한다. ‘기묘자라, 모사라’, 나의 하나님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상징한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사9:6).

인천 온누리교회는 내년 2월말부터 송도 컨벤시아로 예배처소를 완전히 이전할 계획이

다. 성도들에게 익숙하고, 편한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예배에 대한 사모함과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나는 인천에서 복음이 흘러 나가기를 소망하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으로 전해진 땅이 인천이기 때문이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1884년 조선선교사로 임명받아 샌프란시스코에서 일본으로 도착했다. 그가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 인천부두로 상륙해 한국 땅에 복음의 뿌리를 내렸다. 그래서 나는 인천이 귀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인천이 많은 선교사들이 입출국하고, 복음이 전해지기를 바라고, 많은 이들이 머무르

는 선교의 거점지가 되었으면 한다. 특히 송도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한다.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전문 인력들이다. 교사와 금융업 종사자, 기술 인력자 등이 인천에 있는 여러 기관에 전문 인력으로 포진되어 있다.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할 기회가 송도에서 이뤄지기를 소망한다.

한국은 싱가포르나 중국처럼 영어가 모국어 아니지만, 제3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나라다. 한국의 젊은이들과 함께 영어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고, 다음세대를 양육시킬 수 있는 비전을 꿈꾸고 있다.

안전한 교회는 나로부터 시작된다

서빙고 안전위원회, 목회자, 직원, 성도 대상 안전교육 실시
안전한 교회 만들기 ... 관심 갖고, 작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

세월호 사건,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 메르스 사태 등 수많은 사건사고들이 안전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다.

일단 사건사고가 일어난 뒤에는 늦다. 예방이 최선이다. 안전문제 예방을 위해서는 평소 관심이 많아야 하고,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 온누리교회는 지난해 5월 8일 안전관리 분과위원회를 신설했다. 성도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다.

한편 서빙고 안전위원회는 지난달 18일과 25일에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20일에는 목회자,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심폐소생술, 제세동기(AED) 사용법, 소화기 사용법 등을 교육했다.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안전문제 대비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서빙고 온누리교회 안전위원회에서 실시한 안전교육 및 체험에는 약 2,000여명이 참가했다.

서빙고 안전관리위원장 조청구 장로(서빙고 안전관리위원장)를 만나 교회의 안전교육과 예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다음은 조청구 장로(사진)와의 일문일답.



서빙고 안전위원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서빙고 안전위원회는 작년 5월에 시작되었습니다.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모아 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서빙고 온누리교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매주일 4~5만 명의 많

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었고, 시설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서빙고 안전위원회는 많은 성도들의 생명을 지키고, 시설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 대책을 수립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빙고 본당과 비전홀에 2명의 자원봉사의 사들을 배치했습니다. 예배 중에 만약의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발빠르게 조치할 수 있도록 대비한 것입니다. 매주일 오전 6시 30분부터 4시 예배까지 안전센터(본관 1층 안내실 뒤)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안전관리 주안점이 무엇입니까?

“안전을 위해 시설을 정비하고, 안전 캠페인을 벌이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안전관리 전제를 놓고 보면 작은 부분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방향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나의 작은 실천이 모든 성도들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안전을 위한 작은 노력이라도 적극적으로 실천했으면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안전한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교회안전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안전교육에 참여한 성도들이 좋은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진작 했어야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진지하게 배



서빙고 안전위원회는 목회자, 직원, 성도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우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전문적인 교육과 별도로 평소에도 통로를 막지 말아야 합니다.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피로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로에 의자나 비품을 쌓아두는 것을 금해야 합니다.

또한 주차상황이 어렵더라도 소화전 앞에는 주차하면 안 됩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 휴대전화를 보는 것도 가급적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이나 리더십들이 솔선

수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때 다락방장, 순장과 순원들도 안전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더 많은 안전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했으면 합니다. 지혜로운 의견을 나누고, 더 안전한 교회를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문의: 장인수 부장(010-5715-5080)

왕춘식 총무(010-4381-3700)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사역칼럼 박현규 장로(안전관리분과위원장)

몇 년 새 급격한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교회도 안전에 대한 책임부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제기됐다. 그리하여 ‘안전분과위원회’가 작년 5월 8일 신설되었다. 안전분과위원회를 신설하면서 최고의 가치를 둔 것은 ‘성도들의 안전’이었다.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고 난 뒤에 수습하려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한다. 평소에 안전을 확보해야만 사건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교회의 안전에 대해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했다. 대비가 잘 돼 있는 부분도 있고, 취약한 부분도 있었다. 새로운 규정과 규칙을 세웠다. 총괄, 교통, 소방, 시설, 정보, 보건, 행사 등 7가지 분야를 나누고 전문가들을 투입해 팀을 만들었다.

안전에 관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많은 비용을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는 개념의 생활화다. 좋

은 장비와 시스템이 있더라도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사람이다. 평소에 사람들이 장비와 시스템을 사용할 줄 알아야 사건이 일어났을 때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최근 이재훈 목사님이 예수바보행진을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나 자신, 우리 공동체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남이 행하기 어려운 일을 감당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과 기쁨을 주자는 관점이다. 30년 동안 온누리교회가 큰 사건과 사고 없이 지낸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이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리라는 믿음이 있다. 그러나 사람이 스스로 해야 할 것들이 있다. 그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내 옆 사람과 이웃을 지켜주는 것이다.

“나도 모든 일에 모두를 기쁘게 하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합니다. 이는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고전 10:33).

모든 성도들이 안전전문가 되기

이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의 유익까지도 생각해야 한다.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 나 자신만을 지키는 것이 안전의 최선이 아니다. 집이 무거운 사람을 보면 집을 나누어줄어야 한다. 내가 옆 사람을, 옆 사람이 그 옆 사람을 지켜줄 때 우리는 안전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 또한 안전분과위원회에서는 안전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먼저 올해 하반기에 각 캠퍼스의 리더십들과 간사들에게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성도들을 대상으로도 교육을 실시했다.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활용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 제세동기, 소화기 사용법 등을 알렸다. 사건과 사고가 발생했을 때 도구를 발견해도 사용법을 모르면 대처할 수 없다. 교육을 통해 잘 숙지한다면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안전분과위원회의 꿈은 온누리교회가 안전에 관한 본(本)이 되는 것이다. 온누리교회의 안전 시스템을 잘 구축하고, 모범적

인 모델로 만들고 싶다. 그리하여 다른 교회나 단체들이 필요로 한다면 공유하고 발전시켜서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할 것이다. 안전분과위원회는 내년 상반기에 ‘온누리교회 안전 5개년 계획’의 청사진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계속 논의를 하고 있다. 각 상황에 맞는 로드맵을 수립하고 각 캠퍼스를 비롯하여 협력기관까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한다.

가장 기대하는 부분은 모든 성도를 안전전문가로 만드는 것이다. 앞으로 안전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순장을 중심으로 순원까지 실시하여 사고 발생 시 대처 능력을 함양시키려고 한다. 먼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기르고, 그 다음 옆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다. 개인이 안전전문가가 되면 가정도 안전해진다. 가정이 안전해지면 사회가 안전해진다. 물에 던진 조약돌 하나로 물결이 퍼져나가듯이 성도들과 온누리교회가 한국 사회의 안전모범이 되었으면 한다.

성경적 아이디어로 세상 변화시키는 청년들

사회선교부·CCF 주최, 청년벤처인 위한 축제 ‘러빙유청년벤처대회’
대상 보아스필름컴퍼니, 최우수상 제이프로덕션, 우수상 트리플넷

윌트디즈니가 말했다. “모든 꿈은 이루어진다. 우리가 그 꿈을 향한 용기만 가지고 있다면.”

여기, 꿈을 이루기 위해 용기를 낸 크리스천 청년들이 있다. 성경적 원리로 세상을 변화시킬 청년들의 선하고, 특별한 도전이 시작됐다. 그 중심에 사회선교본부와 CCF(Christian CEO Forum)가 공동주최한 ‘2015 러빙유청년벤처대회’가 있다. 이번 대회에는 총 60개 팀이 참가했다. 6개월 동안 전문적인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 세 팀을 선발했다.

2015 러빙유청년벤처대회에는 총 60개 팀이 참가했다. 1차 심사를 통해 20개 팀을 선별하고, 7월에 교육과 워크숍을 실시했다. 8월에 2차 심사를 실시해 9개 팀을 선별했다. 9개 팀에게는 9월과 10월 두 달 동안 팀당 멘토 3명을 연결시켜 주었다. 심층멘토링을 받게 해주었다. 그리고 11월 14일 최종 선발대회 및 시상식이 열렸다.

결선에 오른 9개 팀은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무장해 있었다. 아이디어만 톡톡 튀는 것이 아니었다. 사회적 이슈를 기독교적 관점으로 풀어내려고 노력했다. 벤처대회인 만큼 수익성 창출에도 신경을 쓰고 있었다.

감사메시지 전달 앱을 발표한 ‘Just Thank you’, 맞춤 PR 컨설팅 및 영상제작 아이디어를 제시한 ‘제이프로덕션’, 게임중독 아이들과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을 선보인 ‘GCL(Game Culture Lab)’, 부동산 담보대출 클라우드펀딩 플랫폼을 제안한 ‘트리플넷’, 크리스천 창작자 커뮤니티를 제안한 ‘Lorenzo Film’,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온라인 한국어교육 플랫폼을 제시한 ‘열방고고성’, 의료기기 맞춤제작 아이디어를 선보인 ‘바이



러빙유청년벤처대회 결선에 오른 9개팀.

탈스미스’, 사회이슈를 영화로 제작하는 프로젝트 영화제작사를 표방한 ‘보아스필름컴퍼니’, 문자상담 플랫폼을 제안한 ‘공감 엔터테인먼트’가 그 주인공들이다.

이들은 11가지 기준에 의해 까다롭고 체계적으로 심사를 받았다.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및 소셜미션, 시장분석, 주요 이해관계자 분석, 가치 제안, 솔루션, 경쟁자 분석 및 경쟁우위, 시장진입전략, 수익모델, 예상되는 위험요인 및 전략, 팀내 외부역량, 소셜임팩트가 바로 그것이다.

9개팀 중 최종 3개 팀을 선발했다. 대상은 보아스필름컴퍼니, 최우수상은 제이프로덕션, 우수상은 트리플넷이 수상했다. 대상에게는 700만원의 상금과 이재훈 담임목사와의 식사 기회가, 최우수상에는 500만원의 상금, 우수상

에는 300만원의 상금이 주어졌다. 1년 동안 경영과 재무에 대한 컨설팅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청년벤처대회 결선에 오른 청년들은 수상 여부와 관계없이 아쉬움과 기대감이 가득해 보였다. 모두가 공통의 목적으로 대회를 준비했기 때문이다. Lorenzo Film의 박준모 감독은 “다른 팀들이 하는 것을 보고 많이 배웠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분발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미래에 대한 가능성과 하나님의 꿈으로 무장한 크리스천 청년들에게 기회가 될 청년벤처대회는 내년에도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온누리교회를 넘어 전국 크리스천 청년들을 대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 대상 수상자 소감〉

보아스필름 : 사회이슈를 영화로 제작하는 프로젝트 영화제작사



영화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꿈

모든 팀들의 아이디어가 훌륭하고, 준비를 잘 해서 수상할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새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보고 들으면서 큰 감동을 받았다.

이번 수상은 영화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에 대한 응원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영화를 정말 열심히 잘 만들어야겠다는 생각뿐이다.

상업주의가 난무하는 영화계에서 시대에 필요한, 사회적 필요를 가진 영화를 만들면서 하나님 나라를 지켜낼 것이다.



사역칼럼 정진호 장로(사회선교부)

지역 사회에서 교회가 제 역할을 못한다는 비판이 많다. 이번 청년벤처대회는 교회가 낮은 곳으로 향하고, 사회를 섬겨야 하는 비전을 잘 따르는 좋은 예시라고 볼 수 있다.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에 수많은 청년들이 있다. 온누리교회에도 수많은 청년들이 존재한다. 온누리교회에는 그들의 멘토가 될 비즈니스멘들도 많다. 사회선교부는 경제침체와 청년실업대란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섬겨보자는 의도로 청년벤처대회를 준비했다.

이번 청년벤처대회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프로젝트를 위해 청년들과 사회적 경험이 있는 어른(크리스천 CEO)들이 공동체처럼 협력했다는 점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 표어처럼 기독교가 사회 안으로 깊이 들어가 섬기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전국 크리스천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벤처대회를 확장시도해 볼 생각이다.

결선에 오른 9개 팀 모두 사회 이슈를 잘 다루고 있었다. 컴퓨터 게임 중독을 막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자살방지를 위한 문자상담이라든지, 북한 이슈를 영화로 푸는 것이라든지 어느 하나 마음에 안 드는 팀이 없었다. 비록 순위를 매기긴 했지만 그들은 모두 상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본선에 오른 9개 팀은 내년에 치러질 행사에서 준비위원으로 같이 참여할 예정이다. 먼저 해본 선배로서, 자신들의 경험과 조언을 후배 청년들에게 나눠

청년들이여, 꿈을 향해 달려라

줬으면 한다.

결선 9팀에 오르지 못한 나머지 팀들도 모두 아쉽다. 결선에 오르지 못했더라도 포기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사단은 성공하지 못한 자에게 실패자라고 낙인을 찍는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패자라는 낙인이 아니라,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 있도록 격려하고 힘을 주신다.

청년들이여,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꿈을 향해 달려 나가라.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다. 여러분을 돕는 어른들이 있다. 교회와 멘토들이 청년들의 짐을 함께 나누기 위해 협력하고 상의해 나갈 것이다. 청년들 안에서 러빙유 운동이 일어나길 바란다. 사회선교부는 그런 청년들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원하고 응원할

것이다.

중장년층 어른들은 청년들을 경쟁자로 보지 말고, 파트너로 봐야 할 것이다. 젊은이들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같이 힘을 합쳐서 사회 문제를 풀어 나갔으면 좋겠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당부드리고 싶다. 부디 청년들의 앞길을, 어른들과 연합해 사회에 선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나가기에 힘을 주시고 응원해 주기를 바란다. 지역 사회에는 청년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손길이 필요하다. 노년들의 손길도, 여성들의 활동도 필요하다. 자기가 있는 곳에서, 자신이 맡은 분야에서 사회를 섬길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고 이를 비즈니스로 만들어나가는 노력들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이기훈 목사의
개혁신앙의 흔적을 찾아서(3)



이기훈 목사
(성동광진공동체)

프라하의 도시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개혁신앙의 흔적을 담고 있는 곳이라 한번쯤 꼭 방문해 볼 것을 권한다. 만약 프라하를 여행하게 된다면 이 세 곳은 반드시 둘러보아야 한다.

첫 번째로 볼 곳은 ‘구시가지 광장’이다. 여기에는 눈여겨 볼 것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후스의 동상이다. 그의 외침이 동상 밑에 새겨져 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진리를 요구하십시오. 나의 민족이요 부디 살아남으십시오. 당신의 나라가 당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체코어로 쓰여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지만 큰 의미를 담고 있기에 꼭 보아야 한다. 또 하나는 광장 바닥에 그려져 있는 27개의 흰 십자가다. 후스의 종교개혁을 지지하던 농민들이 봉기를 했지만 타보르 전투에서 가톨릭교회 군대에게 패배해 개혁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1621년 종교개혁을 지지하던 27명의 귀족들이 한꺼번에 화형을 당했다. 그들의 목을 잘라 카를교 입구에 걸어놓았다고 한다. 구시청사 앞바닥에는 1621년이라는 날짜표시와 27개의 하얀 십자가가 그들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 그려

져 있다. 비록 후스의 개혁은 실패로 끝났지만 유럽의 종교개혁을 일깨우는 불씨가 되었다. 타보르에 가면 종교개혁 박물관과 당시 로마교회와 맞서 싸우던 흔적을 담고 있는 카타콤을 관람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볼 곳은 구시청사 맞은편에 두 개의 종탑이 우뚝 솟아 있는 ‘틴(Tyn)교회’다. 조명이 은은하게 비추고 있어 밤의 모습이 더욱 아름답다. 이 교회는 후스의 종교개혁을 가장 먼저 지지한 교회였다. 당시 이 교회는 입구 위쪽에 흙을 파서 금으로 된 성찬기를 전시해 사람들이 보게 하였다. 성찬식은 성경대로 해야 한다는 개혁의 표현이었다. 그러나 개혁이 실패로 돌아가자 로마교회 지지자들이 교회를 다시 점령했다. 그리고 성찬기가 있던 자리에 성모마리아상을 세워놓고 그곳에 있던 금잔을 녹여 마리아상을 빛나게 하는 표시로 사용해버렸다. 개혁파들이 단순한 고딕형으로 장식했던 교회 내부를 바로크 형식으로 화려하게 장식해버렸다. 여행의 기회가 있다면 그 흔적을 반드시 찾아보기를 바란다.

세 번째로 볼 곳은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는 ‘베들레헴 교회’다. 프라하를 방문할 때 반드시 들러야 할 곳이다. 이 교회는 구시청광장에서 바츨라프 광장으로 가는 길목에 있다. 모든 교회가 라틴어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후스는 이곳에서 모국어인 체코어로 설교하였다. 또 모든 교회가 떠난 나누는 성찬식을 하고 있을 때, 포도주까지 성도들에게 나누어주는 성찬식을 거행한 교회다. 이러한 두 가지 행위가 성경적 개혁의 상징인 것이다. 후스의 개혁은 얀 밀리치(Jan Militz, 1374년 가톨릭교회로부터 이단으로 정죄 받고 죽음)로부터 시작되었다. 사제인

프라하 ‘틴교회’와 ‘베들레헴 교회’



▲ 베들레헴 교회 입구.
◀ 베들레헴 교회

그는 수도원 학사에서 창녀들의 고해성사를 받아주었다. 당시 프라하는 부흥하는 도시로서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자연스럽게 창녀들의 활동이 많았다고 한다. 그는 같은 사람이 같은 죄를 가지고 찾아와 계속 같은 고해를 하는 것을 보고 그들 신앙의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교회라는 제도 속에는 있었지만 복음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말씀이 없으니 변화도 없었다. 라틴어로 진행되는 예배에 참석은 하지만 언어를 몰랐기 때문에 아무런 은혜를 얻지 못했다. 당시 라틴어는 귀족들과 사제들의 언어였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학사 옆에

개혁교회의 처음 출생이라는 의미로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의 교회를 세우고 창녀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체코어로 설교를 시작했다.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변화된 많은 창녀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는 예배당의 구조도 가톨릭의 형식을 배제하고 개신교 스타일의 형식을 취했다. 이것이 후에 칼빈이 주장했던 광야교회의 원형이 되었다. 강단에는 오직 성경만을 비치해 놓았다. 오늘날 개신교의 말씀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의 전통이 프라하에서 시작된 것이다. ‘오직 성경으로(SOLA SCRIPTURA)’는 시대를 초월해서 교회와 신앙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 글은 이기훈 목사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대하고, 기념하며 개혁신앙의 흔적과 의미를 성도들과 나누기 위해 동유럽 지역을 직접 찾아다니며 보고, 듣고, 만지고, 느낀 점들을 작성한 것입니다. 10회 연재합니다.



목회칼럼 최성민 목사(허브공동체)

희망노트

가을은 썸 타기 좋은 계절이다. 많은 젊은이들은 “겨울이 되기 전에 썸을 타야 따뜻한 겨울을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썸을 탄다’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를 낸다. 이것은 사랑, 열정, 정열을 뜻하는데 우리의 행동 변화를 보면 알 수 있다. 여자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풀 메이크업을 하고, 하이힐을 신고, 예쁜 옷을 입는다. 정말 열심히 노력한다.

과연, 이런 에너지가 어디서 나올까? 답은 ‘오빠가 나의 오빠가 되리라’는 희망에서부터 시작된다. 썸을 타는 것은 이성으로부터 사랑받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세상도 마찬가지다. 세상 가운데 열심히 사는 이유도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세상은 우리에게 희망을 제시한다. 즉 세상은 우리에게 희망을 보여주지만, 우리에게 희망을 주지는 않는다. 세상은 희망찬 내일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희망찬 오늘을 알려

주지 않는다. 세상은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세상은 우리가 아닌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인생은 평생 살아도 끝이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평생 살며 세상과 계속 썸을 타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평생 세상에 이끌려가야 하는가. 그것은 아니다. 나에게도 세상과 썸을 타던 시기가 있었다. 지난 2004년, 가수의 꿈을 펼치고자 기획사에서 활동하던 시절이었다. 그 당시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길이 보이지 않던 우울한 시절이었다. 내 노력과는 다르게 회의감이 찾아왔다. 그러던 중 만난 분이 예수님이다. 그 전까지 예수님은 이기적인 분이라 생각했다. 남들이 매주 오는 교회를 나는 살아남기 위해 다녔다. 그 이유는 나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나는 교회에 가서 앉아있는 것이 나의 목적이라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내 귀에 들린 희망의

메시지가 있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이 찬양을 듣는데 내 귀에 선명하게 가사가 들렸다. 세상에서 사랑받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됐는데, 예수님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사랑받을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다. 그 때 나는 예수님의 사랑과 세상의 사랑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예수님은 조건을 보고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다.

다섯 살 때 일이다. 동네에 재래식 화장실 하나뿐이었다. 어린 나는 그곳에 올라 설 때마다 무서웠다. “빠지면, 죽을까?” 그런데 상상이 현실이 되었다. 화장실에 빠진 내게 아무도 달려오지 않았다. 기어 올라왔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 모습을 보여주려고 나타났는데, 마을 사람들 모두 도망쳤다. 저 멀리 한 사람이 뛰어왔다. 어머니였다. 그 때까지도 무서

웠다. 삼형제 중 막내였던 나는 두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나를 와락 안아주셨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도망쳤지만 어머니는 조건이 아닌 나라는 존재를 사랑하신 것이었다.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다. 사랑은 성경 안에 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 3:16).

희망노트는 바로 이것이다. 세상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며 바쁘게 살아가도록 만든다. 하지만 세상에 속한 나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외쳐야 한다.

“반짝이는 그대의 젊음을 향해 지금 희망이 달려갑니다. 희망노트는 당신의 가슴이 희망으로 물드는 시간입니다.”

서빙고 2부 새벽기도팀, 고창 아웃리치

서빙고 온누리교회 2부 새벽기도회를 섬기고 있는 스태프와 봉사자 17명이 지난 7~8일 전북 고창으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서빙고 2부 새벽기도회팀은 매년 봄과 가을에 형편이 어려운 농어촌교회를 섬기기 위해 아웃리치를 실시하고 있다.

서빙고 2부 새벽기도회는 서빙고 본당에서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6시 20분에 진행되고 있다. 약 30명 정도의 봉사자들이 찬양과 반주, 자막, 조명, 안내 등으로 섬기고 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봉사자 17명, 고창순복음교회 부흥을 위해



가가호호 방문전도하는 아웃리치팀원들.

간증



/ 김정미 성도

고창에서 복음의 씨앗 뿌렸다

서빙고 온누리교회 2부 새벽기도회팀 소속 17명의 사역자들이 고창으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고창은 창가학회(남묘호례교회), 불교, 원불교, 점쟁이들과 이단이 많은 지역이다. 영적으로 척박한 땅이다. 목적이진 고창순복

음교회에 들어섰다.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라고 쓰인 표어가 눈에 들어왔다. 안영섭 담임목사님이 고창의 파수꾼과 나팔수로서 약 20년째 목회하고 계셨다. 이 교회는 성도가 15명 정도에 불과하다. 노년층이 대부분이다. 우

리는 열악한 환경에 놓인 고창순복음교회의 부흥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섬겼다. 노방전도, 교회 청소 및 주변 정비 등 주민 초청 준비를 했다. 어린이들을 위해 풍선 장식도 했다. 노방전도팀은 두 개조로 나뉘어 전도했다. 우리는 그 곳 가정들을 방문했다.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들어오는 것을 거절하고, 선물도 받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런 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00여 가정을 방문해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말이다.

청년 결혼매칭프로그램 ‘iWe+’ 형제 모집

11월 29일까지 신청

온누리교회 결혼매칭 프로그램 iWe+에서 11월 29일까지 형제 참가자를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출생연도가 1970년~1976년생인 형제다. 자매 참가자는 추후에 모집할 예정이다. iWe+에서는 남녀 15쌍을 모집할 계획이다. 모집이 완료되면 내년 1월 2일 오후 2시

부터 6시까지 만남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iWe+’는 연령층이 높은 청년들의 이성교제를 돕는 만남의 장이다. iWe는 ‘iWe’를 ‘우리(We)’로 바꾸고, 둘이서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I will walk with you’)는 의미를 담고 있다.

참가신청: iweonnuri4u@gmail.com

/ 김미림 기자

영어예배, 대강절 기념행사

영어예배가 오늘(22일) 오후 1시 도곡교육관 조이홀에서 대강절 행사를 개최한다. 어제 서빙고 경향홀에서 열린 대강절 행사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다. 대강절(advent)은 성탄절 4주 전부터 성탄절까지를 가리는 절기다. ‘도착하다, 오다’라는 의미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을 의미한다.



응호망가 마을에서 식수를 시추하고 있다.

군포시 청소년쉼터 하나로 개원 13주년

‘군포시 청소년쉼터 하나로가 개원 13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지난 19일 열린 기념행사는 정태경 장로의 기도, 이정환 목사의 말씀 선포, 임소청소년의 수기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이옥자 소장(군포시청소년쉼터 하나로는)은 행사 참석자들에게 “청소년

들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후원해주시는 마음으로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군포시 청소년쉼터 하나로에는 상시 거주 12명, 대안학교 16명, 지역아동 22명, 한글반 20명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 김현준 기자

제주도 ‘The One’ 집회 열린다!

대학청년부가 오는 11월 27일 저녁 7시, 제주 영랑교회에서 ‘The One’ 집회를 개최한다. 제주도 청년들을 전도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

도 인구 중에 기독교인은 8%가 채 되지 않는다. 대학청년부는 제주도의 이러한 상황을 우려하고, 복음화를 위해 집회를 기획했다.

서빙고 11월 만남의 잔치

날짜: 11월 29일(주일) / 시간: 오후 5시 ~ 7시(식사제공)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지하2층 시온홀(B2)

대상자: 9월 6일 ~ 11월 14일까지 새가족 8주 과정 수료자

S브릿지 정은경 김혜경 이연주 최운성 정지혜 김강식 유수연 하강택 김주은 강지선 문지원 이선진	강 서 윤영진 이석원	김 포 김승환 양성준	장윤정 나정호 최성애	성동광진 김정은 배 준 김혜진	김성중 이한나 윤은주 오유숙	권은경 강향미 김명연 조은별 이예희 황유경 김근영 김재영	중종로 조영선 김지연 하성원 조득용 니영승
가정사역 정연미 조혜진 김태주	관악금천 김형철 김미숙	동대문중앙 엄인수 김정옥 김진수 김옥희	서대문 조한준 문점용	양 천 김미영 김용희 김지혜	영등포구로 황미경 김찬숙	이 수 김인숙 곽대영	이 촌 박원준 박성일 이원재 김용태 최환익
	광 명 김신은	동 작 최희준 김정아	서빙고 박성자				한 강 김은솔

차세대 입교명단

▷ 중등1부	▷ 중등2부	이재건990728
권승빈000707	김서진000217	전혜선001109
김성원001111	김지은000407	
김수인000106	류인주001006	▷ 중등3부
김영석000727	박지원001015	고은지000210
김태양000704	배예진001005	김미영000403
김하영000425	서한덕001103	이찬영001115
손준형001021	유은하000613	황영주000510
송인태000912	윤준석001218	
오현수000804	이영빈000322	▷ 고등부
이재호000616	이예찬000317	한상훈 990708
조현준000418	이진석000418	강수연 990419
홍서윤000131	정하영001231	김형규 980819
홍예은001108	최혜원000917	김훈민 990415
이희연001027	한예진000830	
현수민000422	홍은기000425	▷ Y공동체
왕유진000707	황경민000712	박세라 990111
황지혜000426	이성은000726	



장로칼럼 박공 장로

전도적 일대일 제자양육

나는 평소에 불신자를 전도해 일대일 제자양육까지 연결시킨 경우가 없었다. 일대일 제자양육이 녹록하지 않은 과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일대일 제자양육에 대해 초보자인 내가 소망교도소에서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일대일 제자양육을 했다. 그 시간은 내가 ‘전도적 일대일 제자양육’에 대해 배우고, 실제로 적용한 좋은 계기가 되었다.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내가 과연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 시킬 수 있을까?”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일대일 제자양육을 시작하면서 마음에 부담이 있었다. 그래도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이 생기고, 신앙이 자라도록 돕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 매주 배운 것을 반복하고, 복습했다. 그 결과 내가 양육한 동반자가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간증을 했다.

하반기에 만난 동반자 한 분은 불신자였는데 일대일 제자양육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나와 만나고 있는 시간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나는 이번에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데 중점을 뒀다. 동반자와 함께 일대일 제자양육을 진행하면서 배운 것들을 반복하고, 복습하면서 복음을 계속 심어주었다.

책과 간증, 성경이야기도 많이 들려줬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사랑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다. 일대일 제자양육이 끝날 즈음 내가 양육한 동반자 두 명이 동료 섬김 모범상을 받았다. 그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다.

분명 말씀이 동반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다. 나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들에게 전도에 대해서도 알려줬다. 내가 그들에게 전도요령을 알려주자 어느 동반자는 가족 중에 혼자만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제는 배운 대로 연로하신 부모님과 형제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다짐을 하였다. 그 다짐이 그들의 기도제목이 되었다.

또한 이재훈 목사님의 설교를 인용해 구원과 구원의 확신에 대한 차이점을 알려주었다. 그렇게 나와 함께 전도적 일대일 제자양육을 한 재소자들에게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은 처음 일대일 제자양육을 시작할 때는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태도였는데 일대일 제자양육을 통해 자신들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체험했다고 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전도적 일대일 제자양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다. 그들과 일대일 제자양육을 하면서 나의 믿음도 자랐다.



권사칼럼 이상옥 권사(성동광진공동체)

“주님을 위해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할까요?”

일흔이 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다. 이 기도제목은 평생 해야 할 기도인지도 모른다. 내가 평생 가야할 길일 수도 있다. 내 기도제목은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 ‘예수바보행진’, ‘향기로운 섬김으로 예배하는 여인들’이다. 교회와 권사회의 표어가 나의 기도제목이 되었다. 앞으로 어떻게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다.

나는 섬김을 평생 기도하며 사신 시부모님과 부모님을 통해서 배웠다. 친정아버지는 형편이 어려운 환자를 우선적으로 돌보고, 곳은 날씨에도 산동네 먼 길까지 왕진 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다. 필요하면 무료로 입원과 수술, 치료를 해주셨다. 시아버지는 후배를 믿고 보증을 섰다가 그 빚을 묵묵히 다 갚아 주셨다. 나의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는 시장에 장사하러 나온 어르신과 아이를 등에 업고 나온 엄마들을 집에 데려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챙겨주셨다. 따뜻한 잠자리도 제공해주셨다. 그분들의 사랑이 아직도 그림자만 하다.

낮은 곳 더 낮은 곳에서 섬기는 분들이 참 많다. 서빙고 온누리교회 1부 성가대를 섬기고 있는 연로하신 두 분의 권사님들이 이에 해당된다. 한분은 성악을 전공하셨는데도 늘 연습의 자리와 1부 성가대의 자리를 지키고 계신다. 그분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격려요, 감동이다. 또 한 분은 온사랑합창단을 섬기며 발달 장애인들을 돕고 계신다. 장애아동들을 기쁘게 섬기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온사랑합창단 교사들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아이들과 함께 하는 모습이 내 가슴을 적셨다. 섬김에 흔들림이 없는 분이 또 있다. 주 인공은 오랜 시간 이어온 순장이라는 섬김의 자리를 내려놓고, 신임 순장을 겸손히 섬기는 우리 부순장님이다. 그분은 순예배 때마다 신임 순장을 가르치거나, 지적하지 않고 온전히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긴다.

이외에도 내가 손꼽지 못하고, 일일이 헤아릴 수 없지만 교회에는 낮은 곳 더 낮은 곳에서 드러내지 않고 섬기는 성도들이 참 많다.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들이다. 그들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사셨고, 섬기셨고, 희생하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본받아 섬김의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다.

기쁘게 순종하는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들을 보면 내 마음도 뜨거워진다. 그분들과 늘 같은 자리에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 옆에서 그들을 지켜보면 나도 더불어 낮아지고, 기뻐진다. 내 안에 있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성품을 버리게 되고, 섬김의 자리에서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순종과 섬김의 길로 이끄실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나는 기도한다.

“저는 주님의 아름다운 딸입니다. 오늘 저는 주님을 위해 무엇을 버리고,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까요?”

매일 새날로 이끄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나는 오늘도 하루를 시작한다.



신앙에세이 니시야마 신이치 목사(야치요 온누리교회)

청년들에게 비전과 기회를 주자!

한 아이의 부모로서, 또 목회자로서, 나는 다음세대들이 신앙과 교회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잘 성장해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다음세대에 신앙이 잘 계승되기를 바라면서 내가 젊은이들의 신앙성장이나 예수님과의 만남의 기회를 빼앗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생각해본다. 그러면 신앙을 내 것으로 삼은 나머지 주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젊은이들을 믿지 못하고, 과보호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올해 9월 있었던 일이다. 야치요 온누리교회에서 자동차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서 강의 제방이 무너져 큰 홍수가 발생했다. 집들이 떠나려가고, 그 곳의 교회도 피해를 입었다. 멀지 않은 곳에서 일어난 일여서 더 속상한 마음이 들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 일요일 밤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는 목사님께 전화가 왔다. 그 피해지역에 봉사 활동하러 가니까 중보기도를 해달라는 부탁이었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했고, 나도 같이 가겠다고 말했다. 바로 다음날 3명의 목사가 피해지역으로 구호봉사를 갔다.

피해지에 가보니 아직 물이 빠지지 않은 곳도 많았고, 자동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곳도 있었다. 피해 입은 교회에 가서 청소를 하고, 진흙들을 빼냈다. 그 외에도 다른 몇 군데 교회를 방문해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구호활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불현듯 드는 생각이 있었다. 그것은 나 혼자만 하고 있으면 어떡하냐는 것이었다. 성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섬김 기회를 주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다.

국경일이 맞물리는 연휴에 교회 청년들에게 헌금을 모아 피해지에 구호봉사를 하러 가는 것이 어떨까하고 읊소했다. 나는 몇 달 전부터 예정되어 있던 아웃리치 일정으로 함께 가지 못했는데도 10명 가까운 청년들이 봉사하러 가겠다고 손을 들어주었다. 나는 목회자로서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나 스스로 청년들이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청년들은 피해지로 가서 훌륭하게 섬겨주었고, 그곳의 교회와 성도님들이 큰 도움을 받아 무척이나 기뻐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날 봉사하러 간 청년 중에는 비기독교인도 있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한탄만 했지 정작 그들에게 비전을 던져주지 않는 나의 모습을 회개했다. 젊은이들의 신앙이 미숙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장하고 믿음을 발현할 기회를 주지 않은 나 자신이 미숙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 공동체 젊은이들은 아직 신앙적으로 안정적이지 않다”거나 “아직 어리니까”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주님과 교제할 기회를 빼앗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주님을 믿으며 도전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 다음세대 젊은이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맡기며, 적극적으로 비전과 도전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가슴깊이 새겼다.

여러분의 공동체는 어떤가? 다음세대를 믿고 맡겨보자. 젊은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잘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주님의 비전을 던져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사도행전 2:17).

선교사 자녀에게 크리스마스 선물 보내기

1 선물 준비

· 방법

- 1) 각 공동체의 선교사역자가 주관하여 준비합니다.
- 2) 주소확인 : 선교사의 주소를 확인합니다. (국내에 있는 선교사 포함)
보안지역에 있는 선교사에게는 한국에 있는 선교단체로 소포비와 함께 선물을 보냅니다.
(선교단체 주소록 참고.)
- 3) 편지쓰기 : 편지는 지나치게 형식적이지 않도록 하며, 순원들이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적습니다.
필히 각 공동체의 선교사역자 및 다락방장의 주소, 전화, 이메일을 기록하여 선교사와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4) 선물준비 : 선물은 우편요금과 배달과정을 고려하여 실용적이며, 부피가 가볍고 깨지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적당한 가격 수준에서 우체국에 기준하는 소포 포장이어야 합니다.
- 5) 작은 선물이라도 선교지에서는 큰 기쁨과 위로가 됩니다. 해외 송금보다는 현지 선교사님 가정이 직접 느낄 수 있는 정성으로 준비해 동참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현지 도착 날짜를 고려하여 11월 중으로 보내기를 부탁드립니다.)

· 선물

- 1) 선교지의 기후를 고려합니다.
- 2) 자녀의 연령을 반드시 확인하여 수준에 맞는 선물을 준비합니다.(각 공동체 선교사역자님들께 선교사 자녀 선물보내기 주소와 명단을 메일로 발송)
- 3)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선물 (자녀수와 연령 확인) : 학용품 (크레파스, 연필, 공책, 물감 등), 부피가 크지 않고 깨지지 않는 장난감, 옷, 장갑, 모자, 큐티책, 게임 S/W, 책(동화, 위인전, 교양만화, 학습지 등).
* 보안지역 제외 품목 : 음반, 서적, 비디오, 악세사리 등

2 보안지역 유의사항

· 보안지역이란?

공산권, 모슬렘, 선교 및 선교사 활동을 금하거나 비자를 제한하는 지역으로 선교사의 신분 보장하기 위함.

- * 보안지역으로 보낼 경우 기독교 관련 선물과 편지는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표기사항도 아래와 같이 해야 합니다.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는 가능한 선교사가 소속된 해당 선교단체와 사전 협의를 당부드립니다.
기독교 용어 (하나님, 기도, 예배 등등)는 가급적 피할 것.

· 보안지역 안내

공산권-중국
모슬렘권-중동 및 중앙아시아 전지역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북아프리카, 동유럽 일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힌두교권-인도, 네팔 등(비자 제한 지역)
불교권-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 각 공동체는 기록된 선교지 주소로 소포 포장을 하여 선물을 발송합니다.
다만, 수신주소가 선교 단체로 되어있는 경우에 소포 포장을 하여 소포비와 함께 선교 단체로 발송합니다.(예수전도단은 예수전도단에 현지 주소 문의 후, 발송은 직접 공동체에서 발송합니다.)

3 문의

- 1) 각 공동체 및 캠퍼스 선교사역자
- 2) 2000선교본부(최휘준 간사 02-3215-3208, abc12@onnuri.org)

4 우편요금

·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http://www.koreapost.go.kr>

- * 자세한 사항(규격, 요금, 중량 등의 접수조건/통관/우편물 중 추적(행방조사) 등)은 1588-1300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5 선교단체 주소록

단체	주소	문의
비전빌리지 TIM사무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 62	02-794-1063
비전빌리지 훈련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 62	031-331-8100
이천선교 후원사역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303 현대아파트 31동 202호	070-4949-7882
경배와 찬양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1길 54번지	02-796-9700
바울 선교회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조경단로 61 2층	063-254-8418
빌리온 선교회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 58길 2F	02-879-1191
알타이 선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2동 86-4번지 지아나빌딩 2층	02-576-8503
중동 선교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2동 156-3 한일빌딩(선교제일교회) 4층 401호	02-3436-3307
창조과학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동 639-6 강남빌딩 5층	02-419-6465
BEE KOREA	서울특별시 동작구 매봉로 2길 18	02-822-9480
Come Mission (한국컴선교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29-21번지	070-8250-3985
Cornerstone (모퉁이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 우체국 사서함 8호	02-796-8846
FMnC 선교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2 오션빌딩 3층	02-848-6251
GBT 선교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왕동 1505-29 신한대뷰오피스텔 406호	02-598-5324
GMF 선교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본로2길 46-25	02-2653-4270~1
GMP 개척 선교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14길 25	02-337-7191
GMTC 선교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본로18길 78	02-2649-3197
GO 선교회	충청남도 공주시 오금티로 금학동 549 2층	02-400-9182
GP 선교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말로 8길 17 2층	02-443-0883
HOPE 선교회	서울특별시 강남우체국 사서함 1052호	070-4006-5300
Inter-Coop	경북 상주시 화서면 상용리 634 열방센터	070-8787-8807
InterServe 선교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210 코오롱트리폴리스 A동 1206호	070-4352-6510
ITM 선교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4동 981-12호 2층	02-2695-1451
KIBI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동 4-108 대룡빌딩 1층	02-792-7075~6
OM 선교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464-60 세션회관3층	02-6925-3333
OMF 선교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본동 763-32 호연빌딩 2층	02-455-0261
OMC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369 성창빌딩 4층	02-3459-1031
UPMA 선교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마산로 76 한국세계선교협의회 4층	050-5315-1993
WEC 선교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65-7 송진빌딩 4층	02-529-4552
YWAM(예수전도단)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7나길 14	02-322-0563

“관심 어린 손길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온다. 크리스마스는 매년 돌아오지만, 각자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 지나온 세월에 따라 다르게 느껴질 것이다.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맞이하는 느낌 또한 남다르다. 나도 지난 10년 동안 인도네시아에서 맞이하던 크리스마스를 떠올려보면 그 순간들이 잊히지 않는다.

선교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다. 부모를 따라서 오거나 그곳에서 태어난 자녀들에게 크리스마스는 낯설게 느껴지기도 한다. 익숙하지 않은 문화와 사람, 가족과는 다른 사람들 속에서 맞이하기 때문이다. 선교사 자녀들에게 크리스마스가 낯설거나 어색한 시간이 아닌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과 같이 사랑으로, 기쁨으로 주어지는 시간을 선사 해주면 어떨까. 기쁨은 큰 데서 오는 것이 아니다. 성도님들의 관심 어린 손길이 필요하다. 성도님들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선교사 자녀들에게 전해져 자녀들의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이 싹트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자신의 삶을 나눠주시는 예수님과 같이 여러분의 작은 선물이 선교사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확신한다.

/ 김홍주 목사(2000선교본부장)

선교사 자녀들에게 큰 힘이 된다

2013년부터 양재 온누리교회 여호수아공동체에서 타지키스탄의 선교사 자녀들을 물심양면으로 섬겨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들의 열정과 헌신이 우리들에게 큰 힘이 된다. 타지키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다. 비즈니스가 쉽지 않은 곳이다. 그러나 봉사단체들은 많다. 여기에서 봉사하고 있는 단체들은 대부분의 한국의 기독교인들이다. 그래서 이곳에는 한국인 선교사 자녀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 이곳의 선교사 자녀들에게는 3개월 동안의 방학이 길게만 느껴진다. 딱히 갈만한 곳도 없기 때문이다.

어떤 분들은 선교현장에 와서 선교사 자녀들과 보내는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선교사 자녀들은 한국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과 그들로부터 온 선물을 받을 때마다 행복해 한다. 가장 기다리는 날이기도 하다. 그들에게 큰 행복을 주는 기억이 된다. 청소년기에 있는 아이들은 한국에서 전문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들을 보면서 비전을 찾고, 열정을 되찾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선교사 자녀들을 잊지 않고 선물을 전해주고, 찾아주고, 섬겨주는 많은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 타지키스탄 섬김이



주일강단

〈3면에 이어〉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다

이것이 바로 위선이요, 거짓이요, 성령을 속인 것입니다. 그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너무 심하게 다룬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엄하게 다루셨을까요.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이제 시작된 성령공동체를 더욱 거룩하고 순결하게 보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큰 두려움이 임하게 하심으로 거짓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탄이 거룩한 공동체를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온 교회와 이 일에 대해 소문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행 5:11).

“더욱이 남녀 할 것 없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돼 그 수가 늘어났습니다”(행 5:14).

큰 두려움이 임함으로 교회가 거룩하고, 순결하고, 주께 나아오는 사람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도방법입니다. 우리가 말을 잘해서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는 두려움이 가득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공동체가 되면 하나님이 믿는 사람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엄격하게 다룬 것입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했을 때 하나님이 징벌하셔서 그들을 죽이셨습니다. 또 ‘웃사’라는 사람이 ‘다윗’의 명을 받아 법궤를 옮길 때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는 법궤를 힘들다고 수레에다 끌다가 수레가 흔들려서 법궤를 손으로 잡았을 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전리품을 숨겼을 때도 징벌하셨습니다. 거룩하고 순결함이 손상

될 때 하나님은 엄하게 다루셨습니다. 사탄이 그 공동체를 넘어서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것입니다. 옷이 깨끗하고 희면 흠이 더 크게 보이듯이 깨끗한 옷을 입고 있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위해서 강하게 다루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진리 안에서 성장하기를 위해서

둘째,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진리 안에서 성장해가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곧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후반부에 보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진리 안에서 세워져 가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청결한 마음으로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벧전 1:22).

여러분 왜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성도들이 서로 싸우고, 찢어지고, 갈등이 생깁니까. 진리 안에서 사랑하지 않아서입니다. 진리로 그들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짓을 미워하고, 진리 안에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거짓이 포함된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도들을 사랑하면 거짓이 점점 커져서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아주 작은 거짓이라도 버려야합니다.

셋째,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또 다른 형태의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을 가장 큰 복이라고 여기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닙니다. 이 사건은 거짓에 사로잡혀서 이 세상에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이상 물들지 않도록 먼저 데려가

신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사탄의 종노릇 하지 않도록 먼저 데려가신 것입니다. 그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또 다른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천벌을 받고 지옥에 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죽음은 곧 지옥이라는 등식을 버려야 합니다. 비록 그들의 육체적인 죽음은 하나님의 진노였지만 영원한 죽음은 피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일지 모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옥에 갔다고 단정하는 것보다 모른다고 대답하는 것이 옳습니다. 어쩌면 그들을 데려가심으로 그들이 영원한 죽음에 처하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했던 초대교회조차 사탄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큰 두려움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보호하셨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계속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교회를 무엇으로 공격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거짓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사탄이 공격할 명분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잘못된 비교의식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나바와 자신을 비교할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신의 믿음의 분량대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했으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부를 낸 바나바처럼 인정받고 존경 받고 싶어서 거짓으로 자신들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중하게 다루셨습니다. 그래서 큰 두려움이 임하게 하였고, 초대교회를 더욱 성령 안에, 진리 안에 바로 서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잘못된 비교의식이 있을 때 사탄이 틈타고 공격합니다. 우리는 다른 어느 누구처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을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나아가면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 정직하고, 진리에 더욱 순종한다면 교회는 사탄을 이길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궁금한 창조 과학이야기 2. 음식



/ 강영재 장로
(창조과학선교팀 식품위생학 박사)

하나님은 천지창조 셋째 날, 풀과 채소, 나무를 만드시고 여섯째 날, 모든 동물들과 사람을 만드셨다. 사람에게에는 먹을 것으로 채소와 나무의 열매로 주시고, 동물에게는 풀을 먹이로 주셨다. 채식으로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섭취하고 건강을 잘 유지하게 만드셨다. 현대사회에서도 육식을 많이 하면 성인병에 걸릴 위험이 증가되고, 최근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지나친 적색육 섭취가 암 발생 위험이 있다고 발표해 많은 이들을 충격에 빠트리기도 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대홍수가 끝나고 노아와 가족들에게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 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창 9:3)고 말씀하시며 육식을 허용하셨다.

하나님은 왜 육식을 허용 하셨을까? 어떤 이들은 대홍수로 모든 채소와 나무가 죽고, 손상되어 식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져서 하나님이 육식을 허용하셨거나 노아 가족의 간청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 당시 채식만 하던 사람들이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동물의 고기를 먹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을 것 같지 않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육식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육식을 명령하셨다. 즉, “채소를 먹는 것처럼, 고기도 함께 먹으라”고 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왜 육식을 허용 하셨을까?

현재 우리에게 영양학적 관점으로 볼 때 반드시 육식이 필요하다. 채식만으로는 필요한 영양소를 다 섭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채식만 하는 경우 영양 결핍 내지는 영양 불균형이 일어난다. 식물에도 단백질이 조금씩 있기 때문에 식물만으로 섭취해도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의 아미노산 조성은 다르다. 반드시 섭취 되어야만 하는 필수 아미노산은 식물성 단백질에 없는 필수 아미노산이 동물성 단백질에만 있다.

우리 몸은 한 가지 아미노산을 다른 아미노산으로 변형시킬 수 있는 다양한 효소를 갖고 있다. 만약 우리 몸이 식물성 단백질에 있는 아미노산으로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만들어낼 수 있다면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아도 된다. 홍수 이전에는 우리 몸이 채식으로 섭취한 식물성 단백질의 아미노산으로 우리 몸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아미노산을 합성할 수 있었는데, 홍수 이후에는 그렇지 않게 된 것 같다. 홍수 이후 자라난 식물들이 변화하여 식물성 단백질의 성분이 바뀌었을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우리 몸에 변화가 일어난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아미노산은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하는데, 그런 아미노산을 채워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육식을 명령하셨을 것으로 보인다. 필수 지방산도 마찬가지다.

왜 우리 몸에서 스스로 필수 아미노산을 만들 수 있는 능

력이 사라졌을까? 이것은 필수 아미노산을 만들어낼 수 있는 효소를 만드는 유전자 시스템이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노아 시대 대홍수 사건은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격변이었다. 화산폭발에 의해 형성된 용암지대인 ‘데칸 고원’은 인도 대륙을 거의 덮고 있다. 대륙붕 지역에는 그보다 10배가 더 큰 용암지대가 발견된다. 또한 암석을 조사하면 과거에 급속한 방사선 붕괴가 있었다. 또한 홍수 이전 형성된 공장 위의 물층이 파괴되어 자외선이나 우주 방사선 등의 노출이 증가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DNA가 손상을 입어 수명 단축 및 대사장애를 일으켜 채식만으로는 건강을 유지하기 어렵게 됐을 가능성이 높다. 안젠가는 우리 몸의 DNA를 세밀하게 관찰해 손상된 기능의 일부를 일부 아미노산 변환 효소들을 찾아낸다면 이런 주장이 확인될 날이 올 것이라 생각한다.

하나님은 사람과 동물을 창조하시면서 먹을 것을 정하여 주셨다. 대홍수 이후도 모세를 통해 먹을 것에 대해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에 대해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대할 때마다 먹을 것을 매일 공급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지나친 육식 중심의 식생활은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채식위주의 식사도 약간의 육식을 보완해주는 것이 창조 섭리에 맞는 건강을 유지하는 식생활이 될 것이다.

14 온누리신문

서빙고

02.793.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본당
2부 오전 9:00 본당
3부 오전 11:30 본당
4부 오후 1:50 본당
5부 (십자가의 길) 오후 4시 경찬을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본당
(일본어통역 지원)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본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시 본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20 본당

월요 치유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홀

화요 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본당

수요 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본당

수요 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본당

목요 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본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두란노홀

금요 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본당

금요 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본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손정훈 목사

시간: 매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김국중 팀장 (010-8885-6757)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김정섭 팀장 (010-3301-2897)

장애회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박모세 팀장 (010-5358-3648)

야베스람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7:00~8:30 선교관 403호

문의: 윤명자 팀장 (010-3217-9593)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7: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 (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전도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청년자적장애우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30 서빙고 한동을

문의: 최성훈 목사(010-8820-9191)

일본어예배

매주일 오후 2:20 선교관 한동을

문의: 조승찬 팀장(010-2307-5547)

영어예배

매주일 오후 4:00 본당

문의: 02-3215-3685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안산 - 주일예배

러시아 예배 10:00 안산M센터II, 2층

캄보디아 예배 10:0 안산M센터I, 4층

미얀마 예배 10:30 안산M센터II, 3층

몽골어 예배 14:30 안산M센터II, 2층

네팔 예배 11:00 안산M센터II, 4층

열방 예배 09:00/11:30 안산M센터I, 1층

태국 예배 14:30 안산M센터II, 3층

스리랑카 예배 14:30 안산M센터II, 4층

베트남 예배 14:30 안산M센터I, 3층

필리핀 예배 15:00 안산M센터I, 4층

다문화꿈땅예배 11:00 안산M센터I, 3층

다문화파워웨이브 11:00 안산 스타트리

서빙고

몽골어예배 14:30 선교관 401호

러시아어예배 14:30 선교관 301호

네팔어예배 14:30 선교관 402호

아랍어예배 14:00 본관 B102호

매월 첫째주 선교관 402호

중국어예배 13:30 경찬홀

인천 몽골어예배 14:20 인천 온누리교회

평택 몽골어예배 11:30 평택 온누리교회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

-서빙고: 매주 토 오전8:00 시온홀

-양재: 매주 토 오전8:00 JDS홀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00 본관 B102호

문의: 김기행 집사(010-8627-2098)

군 선교와 군입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차세대 수요 어머니 기도모임

서빙고: 매주 수 오전 9:15 누리홀

양재: 매주 수 오전 9:15 화평홀

도곡: 매주 수 오전 9:30 온유희

문의: 서빙고 023215-3525

양재/도곡 02570-7553

마리아행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 (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안내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9시

장소: 선교관 402호

문의: 송웅주 형제(010-8591-8236)

목상의집(WIN) 주일예배

일시: 매 주일 10시 남한산성 목상의집

*셔틀운행(010-8870-9313)

-양재역10번출구 9:00 출발(던킨도너츠)

-북정역 2번출구 9:20 출발

여성사역 교회큐티방

월요나눔방 9/7개강 10시30분-12시30분,

신관203호

화요나눔방 9/1개강 10시-12시30분, 드림홀

수요나눔방 9/2개강 1시-3시, 신관203호

목요나눔방 9/3개강 1시-3시, 신관203호

금요나눔방 9/4개강 10시30분-12시30분,

신관203호

문의: 여성사역(02-3215-3247)

서빙고일대일양육자반

수강신청조건: 일대일 동반자과정수료, 온

누리등록교인, 세례교인, 순예배참석

(모두 해당되어야 수강가능)

수강신청: 아이스쿨

오은규 목사반

일시: 11월 29일~ 3월 20일 매주 주일 8:10

장소: 신관401호

문의: 이미경 집사(010-7551-0575),

김숙경 간사(02-3215-3220)

임함재 목사반

일시: 12월 6일~ 3월 27일 매주 주일 8:10

장소: 선교관 408호

문의: 정태선 010-6656-0969,

김숙경 간사(02-3215-3220)

심갑섭 장로반

일시: 12월13일~3월 27일 매주 주일 8:10

장소: 신관 402호

문의: 박미룡 집사 010-4760-8935,

김숙경 간사(02-3215-3220)

전구영 장로반

일시: 12월 15일~4월 12일 매주 목 19:30

장소: 신관 401호

문의: 박준영 집사 010-4705-2179,

김숙경 간사(02-3215-3220)

월드프렌즈 NGO 해외봉사단원 모집

모집인원: 2명

서류접수: 11월 28일까지

서류전형 발표: 2014. 11. 30(월)

제출: www.eccngo.org 홈페이지에서 지원

서 다운로드 후 smt4810@gmail.com

문의: 장호연 간사(02-3785-0931/070-

4464-8110)

사랑부 율동교사 모집

시간: 주일 오전 9시,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장준호 총무(010-2403-7207)

CMN 방사선사 의공사 봉사자 모집

인원: 00명

문의: 오현병 간사(02-3215-3786)

온누리 남성선교 합창단원 모집

모집: 온누리출석교인 30~50대

연습: 매주 화요일 서빙고신관 402호

19:30~21:30

문의: 양득호 총무(010-8702-2854)

*게시판 광고마감 목요일 오후 4시

양재

02.570.7430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0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2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월요QT예배

매주 월요일 오후 7:30 화평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시간: 수요일 오전 10:30

장소: 양재 본당(사랑홀)

문의: 배수연 간사(570-7277)

수요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말씀: 이상진, 문영재, 박성희 목사

문의: 유재홍 간사(570-7437)

목요찬양예배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50 기쁨홀

말씀: 이상진 목사

문의: 윤상화 간사 (570-7430)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3:0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이상민 팀장(010-4720-4669)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담당: 이정환 목사

시간: 매주 주일 오전 11:20

장소: 양재 트리니티 신축건물 304호

문의: 오탄 간사(02-570-7522)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

로 드리는 예배)

Jesus Rock 5세 ~ 초등1 (충성홀 11:30)

Jesus Crew 초등2 ~ 초등6 (JDS홀 9:00)

Jesus Vine 중등 ~ 고등 (충성홀 9:00)

도곡교육관 주일 9:00 예배

성인예배: 사랑홀 (숙명여고 대강당)

차세대예배(한국어)

영아부: 도곡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도곡교육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교육관 온유희(A동 2층)

고등부: 도곡교육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11:30 예배(영어)

Adult Service: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차세대예배(영어)

Hope Zone(Newborn~Age4)

: 도곡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곡교육관 꿈터(B동 1층)

Joy Zone(Grades3~6)

: 도곡교육관 온유희(A동 2층)

Middle School Group(Grades7~8)

: 도곡교육관 기쁨홀(A동 3층)

High School Group(Grades9~12)

: 도곡교육관 기쁨홀(A동 3층/오후 1:30)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

(청년부)

갈렙청년부예배: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최재호 전도사(010-4336-3528)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제라르 티네베)

일시: 주일 오후 2:00

장소: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3912-9393, *통역 지원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배수연 간사(570-7277)

병원사역예배와 환우기도모임

장소: 양재 비전홀A

시간: 매주 수요일 10:30~1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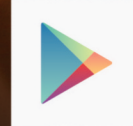
문의: 김정숙 팀장(010-4946-3832)

**UPGRADE**
하모니앱

일상속에서 하나님과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최적의 방법!

잠금해제 할 때마다 바뀌는 말씀 & 명언과
무료로 제공되는 예쁜 배경화면으로
휴대폰의 잠금화면을 설정해보세요!

***우리말성경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설치방법
1.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CGNTV 하모니' 를 검색하세요.
2.다운로드 휴대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바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CGNTV 하모니는 안드로이드 전용 어플리케이션입니다.)

CGNTV 를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하는
온누리 챔버 연주회
Onnuri Chamber Concert

초대합니다
2015.11.30 (월)
저녁 7시 30분
양재 온누리교회 사랑홀
(무료관람)

온누리 성도님들의 사랑과 헌신으로
CGNTV가 10년이 되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온누리 챔버 연주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연주곡들은 가족 모두 감상하실 수 있는
대중곡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1월의 마지막날 아름다운 연주로
가족, 친구들과 소중한 추억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 주최 : 온누리교회 연합 챔버
- 후원 : **CGNTV**
- 문의 : 02-796-2243 (CGNTV 후원기획실)

Tv 프로그램



▷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출산육아특집
-11/23(월) 오전 11시 이영숙 박사 / 한국성
품협회 '내 아이의 성품, 태교에서부터'
-11/24(화) 오전 11시 백은실 사모 / 303비
전 성경암송학교 강사 '말씀을 심는 하늘엄마'



▷ 반갑습네다 시즌2 통일복소리
-11/24(화) 오전 11시 30분
해방 전 3,000개의 교회가 있었던 북녘에
교회가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북한의 복음
화와 통일준비에 힘쓰고 있는 김종석 목사(북
한교회세우기연합 사무총장)의 이야기입니다.



▷ 지구촌 반상회
-11/27(금) 오전 11시 30분
한국의 빨리 빨리 문화에 익숙하지 않았던 외국
인들이 한국에서 겪었던 에피소드와 세상과 다
른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 이야기해 봅니다.

채널안내

IPTV
olleh G 채널237
SK Btv 채널554
LG U+ 채널183
케이블TV
C&M 채널703
CJ 헬로비전 채널702
시청문의
02-796-1118

주 간 편 성 표

11/22(주일)	11/23(월)	11/24(화)	11/25(수)	11/26(목)	11/27(금)	11/28(토)
06:50 생방송 주일예배(1부) 08:2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10:30 지구촌 반상회 11:30 생방송 주일예배(3부) 13:00 생명의 삶 13:20 어린이예배 15:20 믿음의 씨앗 고향교회와 함께 16:00 영어예배 17:20 여의도순복음교회 주일예배 18:20 토크콘서트 힐링유 19:00 생방송 열린새신자예배 21:00 강석우, 유윤선의 하늘빛항기	05:00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5:40 CGN 투데이 07:40 하용조 목사의 순종 11:0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11:30 믿음의 씨앗 고향교회와 함께 13:50 토크콘서트 힐링유 15:30 진로와 소명 컨퍼런스 16:50 전선 프랭클린의 부흥 18:50 [말씀] 아규현 목사 (수영로교회) 20:10 송병현 교수의 엑스포지멘터리 21:40 김용의 선교사의 다시 복음 앞에 23:50 페리 노블의 성장하는 교회	05:00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5:40 CGN 투데이 07:40 [말씀] 홍정길 목사 (남서울순복음교회) 11:0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11:30 반갑습네다 시즌2 통일복소리 13:50 믿음의 씨앗 고향교회와 함께 14:50 [말씀] 권혁빈 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16:50 [컨퍼런스] 성화 17:20 예수님이 좋아요 18:50 [말씀] 진재혁 목사 (지구촌교회) 20:10 2015 회복축제 <the 기쁨> 21:40 손기철 장로의 말씀치유집회	05:00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5:40 CGN 투데이 07:00 [말씀] 이영훈 목사 (여의도순복음교회) 08:2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11:00 온누리교회 수요여성예배 14:10 반갑습네다 시즌2 통일복소리 15:30 2015 임직자스쿨 16:2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16:50 힐송처치 메시지 17:50 토크콘서트 힐링유 18:50 [말씀] 이재훈 목사 (온누리교회) 20:10 진로와 소명 컨퍼런스 23:50 데이비드 플랫폼의 래디컬	05:00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5:40 CGN 투데이 07:00 [말씀] 김창근 목사 (무학교회) 11:0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11:30 강석우, 유윤선의 하늘빛항기 13:10 [말씀] 권준 목사 (시애틀통계교회) 16:50 [컨퍼런스]새 하늘과 새 땅 18:50 [말씀] 김승욱 목사 (할렐루야교회) 20:10 이재만 선교사의 창조과학과 세계관 21:40 열린새신자예배 <특별한초대> 22:40 반갑습네다 시즌2 통일복소리 23:50 존 파이퍼의 더 바이블	05:00 온누리교회새벽기도회 05:40 CGN 투데이 07:40 하용조 목사의 성령의 사람 10:20 [말씀] 이재훈 목사 (온누리교회) 11:30 지구촌 반상회 13:10 [말씀] 마크최 목사 (뉴욕IN2) 15:30 2014 추앙재단 목회강좌 17:20 나는야 주의 어린이 20:10 2015 임직자스쿨 21:00 [말씀] 지형은 목사 (성락성결교회) 22:40 토크콘서트 힐링유 23:50 대린 패트릭의 사도행전	05:00 온누리교회새벽기도회 05:40 CGN 월드리포트 07:00 [말씀] 조봉희 목사 (지구촌교회) 08:50 조셉 프린스의 은혜 (한복축제 <the 기쁨> 13:10 [말씀] 유기성 목사 (선한목자교회) 14:50 [말씀] 김병삼 목사 (만나교회) 15:30 맞춤특강 <나침반> 16:30 이재만 선교사의 창조과학과 세계관 19:00 2015 임직자스쿨 21:20 반갑습네다 시즌2 통일복소리 22:30 [다큐] 진화론 VS 하 나님

CGNTV 정기후원 [573-910002-67804 하나은행] 문의: 02-796-2243, ARS 060-700-1660
CGNTV 페이스북 (FACEBOOK.COM/CGNTV) / 트위터 (TWITTER.COM/CGNTV) www.cgntv.net

CGNTV
중보기도 모임에
초대합니다!!

- 일시: 매월 첫째, 셋째주 월요일 오후 2시~4시
- 장소: 서빙고온누리교회 선교관 1층 Acts29홀
- 대상: CGNTV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
- 문의: 후원관리팀 3275-9304